

제2장 지역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2. 관련계획 검토

3. 주민수요조사

4. 분석의 종합

제1절 현황 분석

1. 연혁 및 입지여건

1) 연혁

》 21세기를 지향하는 영원무궁한 복된 땅 만세보령(萬世保寧)

-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적어 가장 복된 땅이라고 일컬어짐(이중환의 “택리지”)
- 바다와 접해 있어 섬들이 많고 어장이 많으며, 비록 넓지 않은 평야지만 수리관개가 편리하여 그다지 가뭄의 피해가 없고, 토지는 대체로 비옥해서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고장임(조산산업지)

보령시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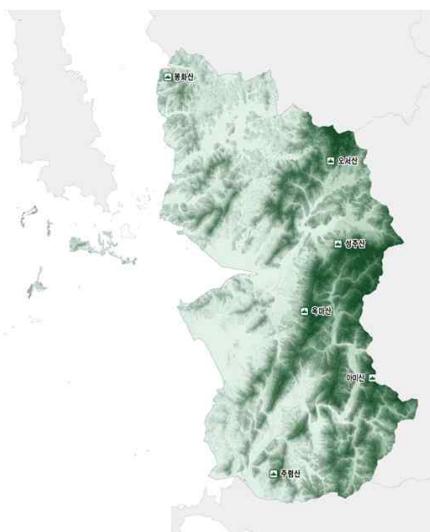
연대	연혁
삼한시대	· 마한 만로국 (삼한의 78개 부족국가형성기 · 삼국지한전 참고)
삼국시대	· 백제의 결기군 신촌현
신라시대	· 웅진도독부에 속한 13현 중 산곤현에서 웅주도독부로 개편
통일신라시대	· 웅주도독부 치하에 결성군 신읍현
고려시대	· 6대 성종14년 을미(995년)에 10도제 개편에 따라 하남도 웅주(현 공주) 보령현 · 8대 현종 9년 무오년(1018년)에 전국을 5도로 병합 통치할 때 양광도 운주(현 홍성) 보령현
조선시대	· 3대 태종 13년 계사(1413년) 보령현 · 17대 효종 3년 임진(1652년)에 도독부로 승격하였다가 을미(1655년)에 보령현으로 강등 · 26대 고종 32년(1895년)에 지방관할 개편에 따라 보령군으로 개정
일제시대 이후	· 1914년 갑인 일정초 부군 통폐합령에 의거 남포군의 9개면과 오천군의 4개면, 결성군의 6개리, 홍산군의 상서면 자명리를 병합하여 보령군으로 개편 · 1986년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되어 보령군에서 분리 ·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을 통합하여 보령시로 개명 · 2011년 4월 20일 현재 보령시 조례 제906호에 의거 1읍 10개면 5개동 235리 113통 1,207개반 관할

자료 : 2013 보령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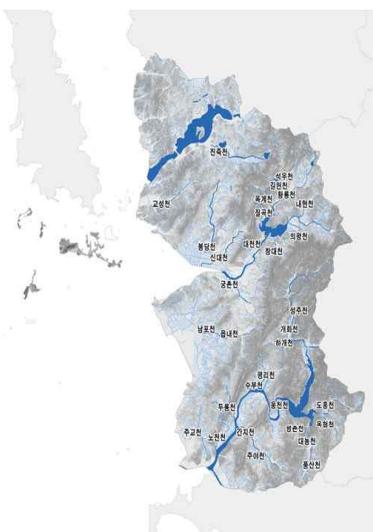
2) 입지여건

〉〉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

-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해와 호서정맥¹⁾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으로는 장항선 철도와 국도 21호선, 동서로는 국도 36호와 40호선에 의해 서해안 교통의 중심을 이루며, 대중국 교류에 대한 서해안 시대의 첨병도시
- 북쪽으로는 홍보지구 간척지·천수만·오서산 등을 경계로 홍성군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오서산·월명산 등을 경계로 청양군과 부여군이 접하며, 남쪽으로는 장태산·부사지구 간척지 등을 경계로 서천군과 접하고 있음



보령시 지형



보령시 수계

- 보령시의 동단은 미산면, 서단은 오천면, 남단은 주산면, 북단은 천북면이며, 동서간의 길이는 70.4km²⁾이고 남북간의 길이는 40.3km임
- 리아시스식 해안에 의해 발달 된 천혜의 관광휴양지를 보유,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보유

보령시 경위도상 위치

구분	지명	극점	연장거리
극동	미산면 도홍리	동경 126도 44분 19.86초	동서간 70.387km
극서	오천면 외연도리	동경 125도 57분 18.37초	
극남	주산면 신구리	북위 36도 10분 19.51초	
극북	천북면 장은리	북위 36도 31분 30.40초	

자료 : 2013 보령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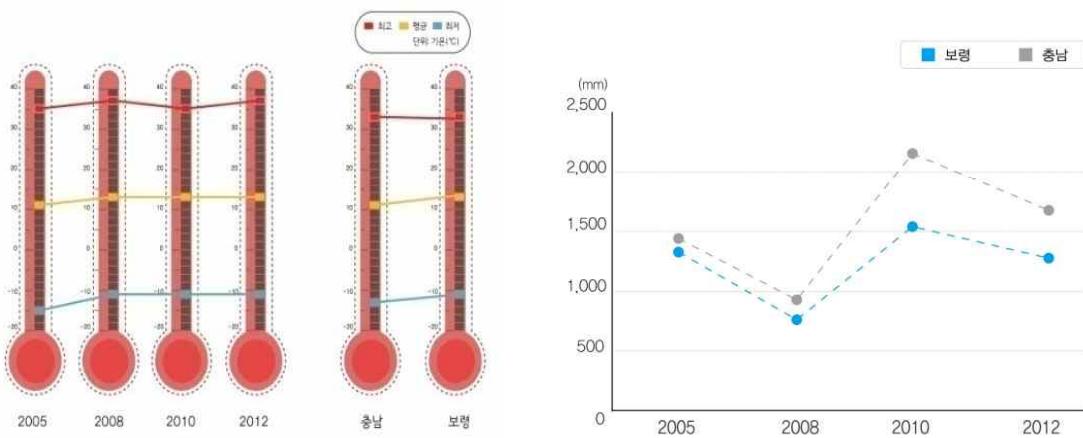
1) 신산경표 기준

2) 동단에서 서단에 있는 보령시 관내 도서의 총 연장길이

3) 자연환경

〉〉 해양성 기후의 영향권으로 온화

- 보령시는 서해안에 접하여, 내륙지방보다 연교차가 적어 충남 평균보다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음
-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은 13°C이고, 연평균 최고 기온은 33°C, 최저 기온은 -11°C를 나타내어 충남 평균과 비교 해 온화한편임
- 최근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경우 충남평균에 비해 약 130mm 적은 1,279mm로 측정 되었으며, 평균 풍속 역시 충남 평균에 비해 약간 적음



연도별 기상개황

구분 년도	기온(°C)			평균습도 (%)	강우량 (mm)	바람(M/S)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대
충남평균	12	34	-14	76	1,410	3	12
보령평균	13	33	-11	71	1,279	2	9
2003	13	31	-12	73	1,344	2	4
2004	13	34	-13	71	1,216	2	11
2005	12	35	-16	72	1,334	3	13
2006	11	23	2	73	1,139	3	10
2007	13	34	-8	70	1,296	2	5
2008	13	36	-11	71	814	2	9
2009	13	33	-11	71	1,081	2	9
2010	13	34	-12	71	1,502	2	10
2011	12	34	-13	72	1,743	2	10
2012	12	36	-12	70	1,319	2	5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3, 보령시 통계연보, 2013

2. 인문사회 환경

1) 행정구역

» 5개 동, 1개 읍, 10개 면으로 충남 면적의 약 6.6%에 해당

- 보령시는 대천1~5동과 웅천읍을 포함해서 1개 읍,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의 113개의 통과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235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음
- 보령시의 전체 면적은 569.01km²로서 전국 면적의 0.57%, 충남 면적의 6.9%임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단위

(단위 : km², %, 개소)

구분	면적	구성비	통·리		반
			통	리(행정)	
충남	8,204.00	—	1,159	4,286	24,083
보령시					
합계	569.01	100.00	113	235	1,207
웅천읍	62.50	11.0	—	35	100
주포면	13.34	2.3	—	8	28
주교면	36.32	6.4	—	20	68
오천면	50.42	8.9	—	22	87
천북면	55.17	9.7	—	28	72
청소면	38.45	6.8	—	21	68
청라면	69.82	12.3	—	21	82
남포면	49.44	8.7	—	24	90
주산면	40.93	7.2	—	29	71
미산면	65.53	11.5	—	16	70
성주면	39.79	7.0	—	11	46
대천1동	5.22	0.9	30	—	96
대천2동	4.06	0.7	17	—	59
대천3동	8.45	1.5	23	—	98
대천4동	7.53	1.3	24	—	104
대천5동	22.04	3.9	19	—	68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3, 보령시 통계연보, 2013

- 보령시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은 청라면이 69.82km²로 보령시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미산면이 65.53km²로 11.5%, 웅천읍이 62.50km²로 11.0% 순으로 행정구역 면적이 크며, 대천2동이 4.06km²로 0.7%를 나타내어 가장 작은 행정구역임

2) 인구 및 가구

〉 보령시 총 인구수는 107,438명으로 충남의 5.18%를 차지

- 2012년 기준 보령시 전체 인구수는 107,438명이고, 가구수는 45,284가구이며, 인구밀도는 185.42명/km²임
- 보령시 전체 인구는 전국대비 0.21%이고, 충남대비 5.18%이며, 보령시 전체 가구 수는 전국 대비 0.25%이고, 충남대비 5.38%로서 인구수에 비해 가구수의 비율이 약간 높음

〉 보령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그 폭이 줄어듦

- 보령시 인구의 최근 12년 연평균 증감률은 -0.83%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7년 연평균 증감률의 경우 -0.16%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폭이 줄어듦
 - 최근 12년 동안 전국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0.55%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의 인구는 0.60%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반면 보령시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그 폭이 줄어들고 있음

인구 및 가구 변화

구분		2000	2005	2010	2012	연평균 증감률		
						최근 2년, %	최근 7년, %	최근 12년, %
인구	전국	47,732,558	48,782,274	50,515,666	50,948,272	0.43	0.62	0.55
	충남	1,930,234	1,922,495	2,000,844	2,074,918	1.83	1.10	0.60
	보령	118,721	108,639	108,865	107,438	-0.66	-0.16	-0.83
가구	전국	14,312,000	15,887,000	17,339,000	17,950,675	1.75	1.76	1.91
	충남	641,499	756,073	854,432	842,446	-0.70	1.56	2.30
	보령	39,112	41,125	45,299	45,284	-0.02	1.39	1.23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보령시 통계연보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

- 보령시 가구수의 최근 12년 연평균 증감률은 1.23%로, 전국 연평균 증감률 1.91%나 충남 연평균 증감률 2.30%에 비해 작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가구수의 최근 12년 연평균 증감률과 최근 7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과 충남은 줄어드는 반면, 보령시의 경우 1.23%에서 1.39%로 증가함

>> 대천1·3·4동은 증가하고 그 외 지역은 감소

- 2012년 기준 보령시 동지역의 인구는 보령시 전체의 56.9%이고, 읍지역은 6.9%, 면지역은 36.2%를 차지함

읍·면·동별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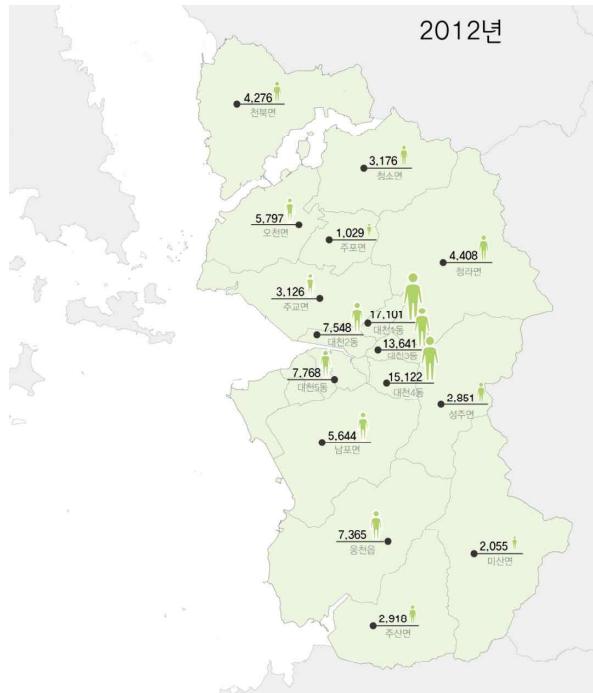
행정구역	2000		2005		2010		2012		연평균 증감률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최근 7년(%)	최근 12년(%)
옹천읍	9,579	8.1%	8,337	7.7%	7,577	7.0%	7,365	6.9%	-1.76	-2.17
주포면	2,163	1.8%	2,043	1.9%	1,900	1.7%	1,906	1.8%	-0.99	-1.05
주교면	6,423	5.4%	6,013	5.5%	5,878	5.4%	5,862	5.5%	-0.36	-0.76
오천면	6,595	5.6%	5,959	5.5%	5,929	5.4%	5,797	5.4%	-0.39	-1.07
천북면	5,347	4.5%	4,617	4.2%	4,421	4.1%	4,276	4.0%	-1.09	-1.85
청소면	4,297	3.6%	3,613	3.3%	3,246	3.0%	3,176	3.0%	-1.83	-2.49
청라면	5,841	4.9%	5,022	4.6%	4,566	4.2%	4,408	4.1%	-1.85	-2.32
남포면	7,051	5.9%	6,121	5.6%	5,857	5.4%	5,644	5.3%	-1.15	-1.84
주산면	4,009	3.4%	3,397	3.1%	3,033	2.8%	2,918	2.7%	-2.15	-2.61
미산면	2,601	2.2%	2,212	2.0%	2,116	1.9%	2,055	1.9%	-1.05	-1.94
성주면	3,846	3.2%	3,307	3.0%	2,905	2.7%	2,851	2.7%	-2.10	-2.46
대천1동	16,338	13.8%	15,948	14.7%	17,284	15.9%	17,101	15.9%	1.00	0.38
대천2동	9,334	7.9%	8,509	7.8%	7,610	7.0%	7,548	7.0%	-1.70	-1.75
대천3동	11,557	9.7%	11,211	10.3%	13,584	12.5%	13,641	12.7%	2.84	1.39
대천4동	14,450	12.2%	13,740	12.6%	15,335	14.1%	15,122	14.1%	1.38	0.38
대천5동	9,290	7.8%	8,590	7.9%	7,624	7.0%	7,768	7.2%	-1.43	-1.48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충남통계연보, 각 년도 보령시 통계연보

- 대천1동이 17,101명(15.98%)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포면이 1,906명(1.8%)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함
- 동지역인 대천1·3·4동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은 감소추세에 있음
 - 특히 대천3동의 경우 인구성장의 폭이 가장 높으며, 최근 12년 연평균 증감률이 1.39%에서 최근 7년의 연평균 증감률이 2.84%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대천4동 역시 최근 12년 연평균 증감률이 0.38%에서 최근 7년 연평균 증감률이 1.38%로 인구의 증가추세를 보임
- 그 밖에 동 및 읍·면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만 최근 12년 연평균 증감률에 비해 최근 7년 연평균 증감률의 인구 감소추세가 작아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냄



인구분포

》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

- 보령시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는 13,941명(13.2%)이고,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장년층인구는 71,165명(67.4%)이며,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20,453명(19.4%)임
 -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의 경우 전국인구 대비 -3.0%, 충남인구 대비 -2.4%가 적었고, 청장년인구의 경우 전국인구 대비 -5.1%, 충남인구 대비 1.8% 적은 것에 반해, 노년층인구는 전국인구 대비 8.1%, 충남인구 대비 4.1%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보령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인구비율이 2000년 당시 11.5%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이었으나, 2012년 현재 19.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함
 - 전국인구의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및 2012년 모두 고령화사회의 단계이며, 충남인구의 경우 2000년 기준 11.2%로 고령화사회였으나, 2012년 현재 15.3%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한 것에 비해 보령시의 고령인구비율의 10년간의 격차가 매우 커 고령화의 가속도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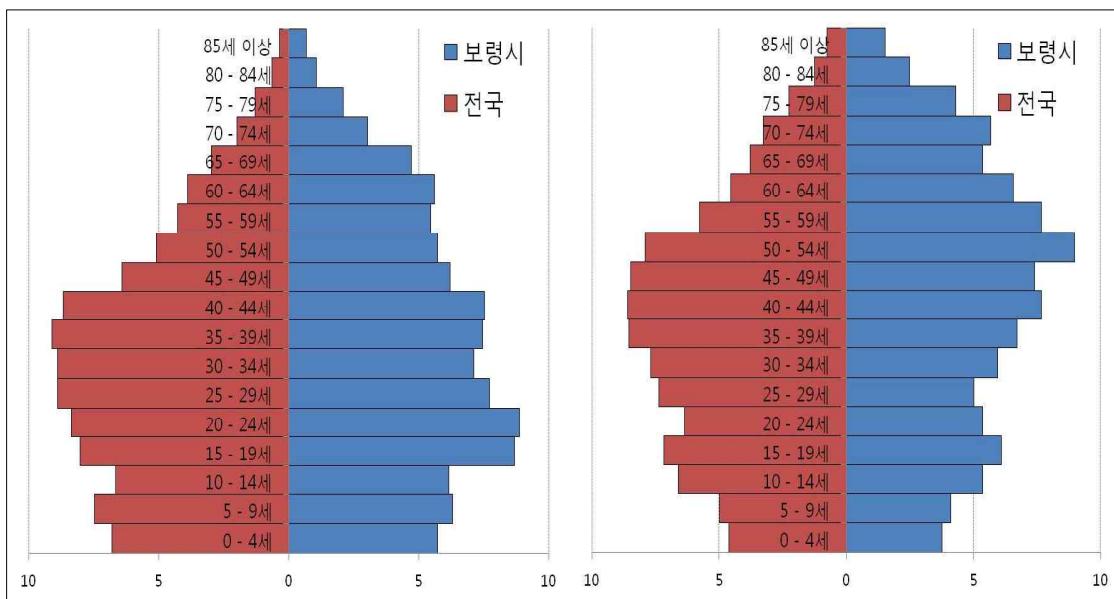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0			2012		
	전국	충남	보령시	전국	충남	보령시
계	45,983,421	1,921,604	118,504	47,990,761	2,028,777	105,5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세 미만	9,638,756	381,468	21,534	7,786,973	315,559	13,941
	21.0	19.9	18.2	16.2	15.6	13.2
15~64세	32,972,859	1,325,077	83,298	34,779,121	1,403,378	71,165
	71.7	69.0	70.3	72.5	69.2	67.4
65세 이상	3,371,806	215,059	13,672	5,424,667	309,840	20,453
	7.3	11.2	11.5	11.3	15.3	19.4
고령인구비율	7.3	11.2	11.5	11.3	15.3	19.4
고령화지수	35.0	56.4	63.5	69.7	98.2	146.7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보령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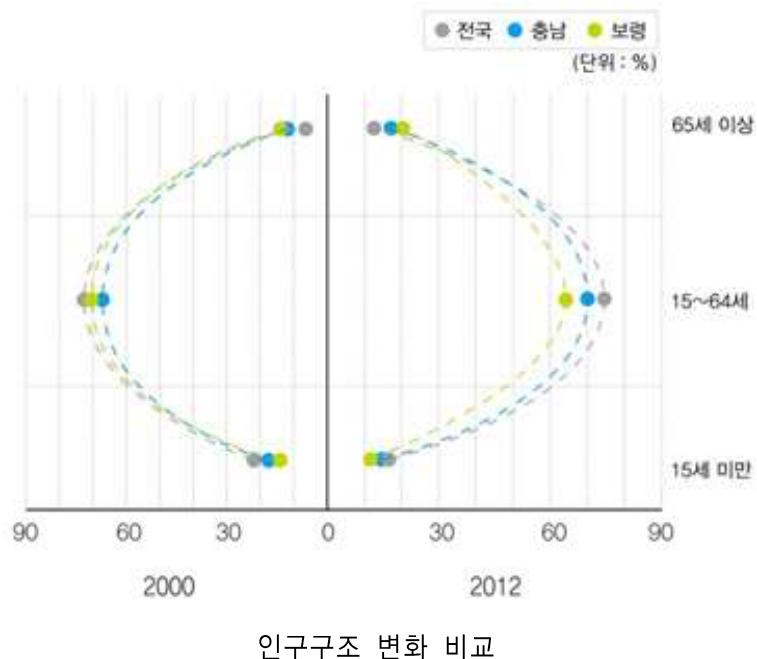
<2000년>



인구구조 변화

- 특히 고령화지수³⁾는 보령시의 경우 2010년 기준 146.7로서 전국 69.7과 충남 98.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저출산으로 기인한 유소년층의 인구는 적고 고령화로 기인한 노년층의 인구는 많아 미래 보령시의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

3) 고령화지수는 유소년층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의 비율로서 미래의 부양비를 가늠할 수 있음



》》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 보령시의 2012년 출생은 743명이고, 사망은 887명으로 사망에 비해 출생이 더 적음
- 출생과 사망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출생의 감소폭이 더 커 2000년 기준 순증가는 312명이었으나 2012년 현재 순증가는 -144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함
 - 최근 12년간 출생의 연평균 증감률은 -3.90%, 사망은 0.01%로 출생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7년간 출생의 연평균 증감률은 -1.30%, 사망은 -0.60%로 감소추세의 폭이 줄어듦

인구의 자연증가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 증감률	
					최근 7년(%)	최근 12년(%)
총인구(인)	118,721	108,639	108,865	107,438	-0.16	-0.83
출생(인)	1,198	814	811	743	-1.30	-3.90
사망(인)	886	925	863	887	-0.60	0.01
순증가(인)	312	-111	-52	-144	-	-
자연증가율(%)	0.3	-0.1	0.0	-0.1	-	-

주 : 1) 순증가=출생-사망 2) 자연증가율=(순증가/총인구)×100
 자료 : 보령시, 보령통계연보, 각년도

- 최근 12년의 감소폭에 대해 출생이 더 큼에 따라 출생자와 사망자의 집계가 역전되었으며, 인구의 자연증가는 2000년 0.3%에서 2012년 현재 -0.1%로 감소하였음

〉〉 전입규모에 비해 전출규모가 더 큼에 따라 사회적인구의 지속적 감소

- 2012년 현재 전입인구는 12,665명(11.8%), 전출인구는 13,378명(12.5%)으로서 200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1% , -2.4% 로 줄어듦
 - 하지만 연평균증감률이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의 감소추세가 더 커 사회적인구의 감소 추세의 폭이 더 작아짐
- 보령시의 전입인구 및 전출인구가 충청남도 내 지역의 이동보다 타 시·도 간 전입인구 및 전출인구의 비율이 약 3배정도 더 많은 특징을 보임

인구이동 추이

(단위 : 명, %)

구분	총이동		순이동	시·군내	시·군간		시·도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00	14,455 (12.2)	17,982 (15.1)	-3,527 (-3.0)	7,295 (6.1)	1,842 (1.6)	3,212 (2.7)	5,318 (4.5)	7,475 (6.3)
2005	14,288 (13.2)	15,065 (13.9)	-777 (-0.7)	6,829 (6.3)	2,082 (1.9)	2,048 (1.9)	5,377 (4.9)	6,188 (5.7)
2010	14,263 (13.1)	14,532 (13.3)	-269 (-0.2)	7,112 (6.5)	1,711 (1.6)	1,793 (1.6)	5,440 (5.0)	5,627 (5.2)
2012	12,665 (11.8)	13,378 (12.5)	-713 (-0.7)	6,379 (5.9)	1,420 (1.3)	1,699 (1.6)	4,866 (4.5)	5,300 (4.9)
연평균증감률 (최근7년)	-1.7	-1.7	-	-1.0	-5.3	-2.6	-1.4	-2.2
연평균증감률 (최근12년)	-1.1	-2.4	-	-1.1	-2.1	-5.2	-0.7	-2.8

주 : 1) 국외이동은 제외, 2) ()는 전체인구 대비 이동률

자료 : 보령시, 보령통계연보, 각년도

3. 지역경제

1) 경제규모

〉〉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지속적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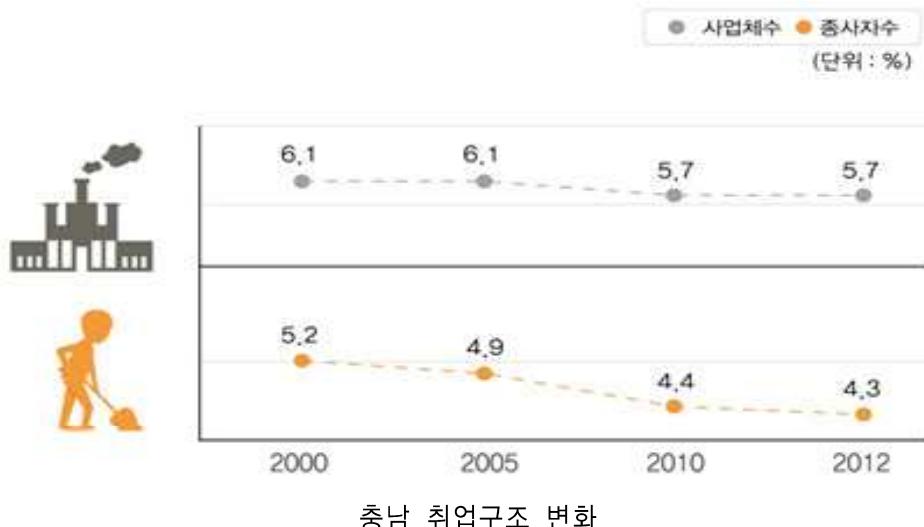
- 2012년 현재 보령시의 사업체수는 8,056개로 충남전체 중 5.7%이며, 종사자수는 32,061명으로 충남전체 중 4.3%임

경제규모 변화추이

(단위 : 개소, 인, %)

구분		충남(A)	보령시(B)	B/A*100
2000년	사업체수	119,149	7,305	6.1
	종사자수	496,966	25,774	5.2
2005년	사업체수	125,538	7,680	6.1
	종사자수	589,493	28,633	4.9
2010년	사업체수	134,317	7,601	5.7
	종사자수	702,560	30,798	4.4
2012년	사업체수	141,212	8,056	5.7
	종사자수	742,046	32,061	4.3
연평균 증감률	최근 7년(%)	사업체수	1.7	0.7
		종사자수	3.3	1.6
	최근 12년(%)	사업체수	1.4	0.8
		종사자수	3.4	1.8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보령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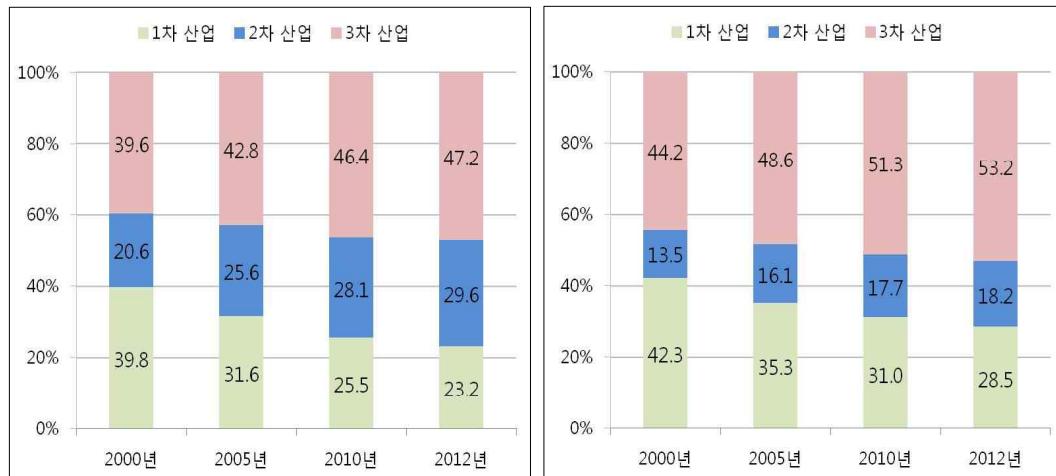


- 보령시 경제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2년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1.4%로 증가를 보이며, 종사자수 또한 3.4%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최근 12년에 비해 최근 7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사업체수가 0.3%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보령시의 경우 -0.1% 감소추세를 보임
 - 또한 보령시가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사업체수가 2000년 6.1%에서 2012년 5.7%로 비중이 감소하였고, 종사자수 또한 2000년 5.2%에서 2012년 4.3%로 감소함
 - 연평균 증감률 중 충남의 경우 종사자수의 증가폭이 사업체수보다 커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보령시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폭이 비슷하여, 중소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경제구조

》 농업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업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 보령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은 2000년 42.3%에서 2012년 현재 28.5%로 감소하였고, 2차 산업은 2000년 13.5%에서 2012년 현재 18.2%로 증가하였으며, 3차 산업은 2000년 44.2%에서 2012년 현재 53.2%로 증가함



- 충남 취업구조 변화**
- 2012년 현재 충남 대비 보령시의 1차 산업이 5.3% 높으나 충남 1차 산업 감소추세의 경향처럼 보령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충남 대비 보령시의 2차 산업이 -11.4% 낮으며 충남 및 보령시 모두 2000년~2005년 사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최근 폭은 작으나 꾸준히 증가함
 - 2012년 현재 보령시의 3차 산업이 충남 대비 6.0% 높으며, 2000년 이후 충남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추세의 경향을 나타냄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구분	충남				보령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1차	39.8	31.6	25.5	23.2	42.3	35.3	31.0	28.5
2차	20.6	25.6	28.1	29.6	13.5	16.1	17.7	18.2
3차	39.6	42.8	46.4	47.2	44.2	48.6	51.3	53.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차 산업은 농림어업조사 농가인구의 60%를 합해서 적용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 LQ지수의 비교

- 보령시의 산업특화도를 전국·충남·충남시부대비로 살펴본 결과,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발달을 나타냄

산업대분류별 LQ지수

구분	전국대비	보령시	충남대비	보령시	충남시지역대비	보령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업, 임업 및 어업	1.82	3.44	0.72	1.68	1.05	2.27
광업	1.94	2.75	1.23	1.78	1.88	2.65
제조업	0.68	0.69	0.75	0.43	0.76	0.4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18	8.87	2.55	5.08	2.81	5.8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3	1.15	0.77	0.80	0.81	0.84
건설업	1.20	1.38	1.04	1.54	1.06	1.63
도매 및 소매업	1.07	1.07	1.07	1.32	1.11	1.38
운수업	0.58	0.75	0.70	1.02	0.68	1.03
숙박 및 음식점업	1.46	1.62	1.26	1.59	1.27	1.6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6	0.33	0.98	1.09	0.97	1.12
금융 및 보험업	0.87	0.94	0.87	1.33	0.89	1.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0.46	0.65	0.55	0.95	0.49	0.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47	0.28	0.72	0.74	0.67	0.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65	0.43	0.68	0.67	0.62	0.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6	1.67	1.54	1.42	1.94	1.92
교육 서비스업	0.87	0.91	0.97	0.91	0.90	0.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87	1.08	0.82	1.12	0.78	1.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5	0.75	1.02	0.94	0.96	0.94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1	1.35	0.99	1.31	1.00	1.38

자료 :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 LQ지수를 구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LQ지수는 사업체수의 경우 4.18, 종사자수의 경우 8.87로 나타나 보령화력의 입지에 의한 산업특화가 전국적으로 높아 특화 산업을 보임
- ‘광업’은 석탄산업이 1995년 심원탄광을 끝으로 48개 문을 닫았으나

규사, 규석, 석면, 활석, 고령토 등 12종 광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타 광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LQ지수가 1을 상회하여 특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충남대비 사업체수의 LQ지수가 낮지만 전국 및 충남의 시지역과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LQ지수가 1을 상회하고 있으며, 종사자수의 경우 전국대비 보령시가 3.44, 충남대비 1.68, 충남시부대비 2.27로 나타나 특화산업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전국대비·충남대비·충남시부대비 모두 낮게 나타나 제조업의 산업적 기반이 약한 것으로 분석됨
 - 전국대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LQ지수가 각각 0.68, 0.69이고, 충남대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LQ지수가 각각 0.75, 0.43이며, 충남시부대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LQ지수가 각각 0.76, 0.40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낮고 역량이 부족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전국대비, 충남대비, 충남시부대비 모두 1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대비 보령시의 LQ지수가 2.46을 나타내고 있음
- ‘협회 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충남대비 사업체수만 0.99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종사자수나 전국대비 및 충남시부대비 모두 1을 상회하고 있음

4.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1) 토지이용

〉〉 충남전체에 비해 농업용 토지이용이 약간 많고, 도시적 토지이용은 약간 적음

- 보령시의 용도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전·답·과수원·목장·임야와 같은 농업용 토지이용은 481.8km²로 보령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며, 충남의 82.4%나 충남시부의 80.9%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대지·공장·학교·도로와 같은 도시적 토지이용은 보령시 38.4km²로 보령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며, 충남의 6.3%나 충남시부의 8.0%에 비해 더 낮은 비율임
 - 보령시와 충남시부 평균을 대상으로 충남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대지·공장·학교 모두 충남시부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공장의 경우 보령시가 충남대비 3.3%인 반면 충남시부 평균은 10.2%로 공장관련 제조업 비율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의 경우 보령시가 충남대비 비율이 7.4%로 충남시부 평균 7.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천m², %)

연도별	합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지	공장	학교	도로	기타
충남	8,204,002	770,289	1,738,711	54,827	46,503	4,152,826	242,341	91,890	22,022	254,360	830,232
충남시부 평균	582,882 (7.1)	52,609 (6.8)	126,542 (7.3)	4,352 (7.9)	3,268 (7.0)	284,546 (6.9)	19,029 (7.9)	9,409 (10.2)	1,837 (8.3)	18,646 (7.3)	62,646 (7.5)
보령시	569,337 (6.9)	42,467 (5.5)	103,807 (6.0)	1,200 (2.2)	3,178 (6.8)	331,108 (8.0)	15,459 (6.4)	3,024 (3.3)	987 (4.5)	18,881 (7.4)	49,226 (5.9)
옹천읍	62,505	5,036	13,155	456	195	34,065	1,687	389	75	2,391	5,057
주포면	13,345	2,029	3,088	20	61	5,830	485	249	29	715	839
주교면	36,364	3,460	9,048	102	372	14,954	1,121	1,394	51	1,230	4,632
오천면	50,606	4,635	5,843	14	154	32,964	998	98	79	943	4,878
천북면	55,178	6,651	10,864	138	1,683	29,430	1,165	70	50	1,637	3,489
청소면	38,441	3,523	7,815	20	178	20,942	852	242	35	1,591	3,243
청라면	69,827	3,695	9,137	95	167	48,213	1,091	33	75	1,772	5,551
남포면	49,471	3,571	19,223	194	153	17,504	1,308	91	33	2,587	4,807
주산면	40,919	2,932	8,904	111	110	23,277	1,017	146	69	1,432	2,922
미산면	65,540	2,726	3,908	0	16	49,989	799	14	42	861	7,184
성주면	39,805	660	644	3	23	36,341	409	62	21	381	1,262
대천1.2동	9,286	439	2,952	6	2	2,622	1,229	13	180	618	1,225
대천3동	8,454	858	1,332	31	12	3,888	924	20	54	746	591
대천4동	7,521	534	1,604	2	0	2,864	848	27	101	609	932
대천5동	22,075	1,720	6,291	8	52	8,224	1,529	175	95	1,369	2,612

주 : ()는 충남대비 면적 비율임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2, 보령시 통계연보, 2012

2) 도시계획

>> 8개 법정동, 1개 읍, 5개 면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

- 보령시는 8개 법정동, 1개 읍, 5개 면에 걸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총 36,699천m²에 달함

도시계획 지정현황

(단위 : 천㎡)

구분	도시계획 구역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충남	911,355 (100.0)	123,956 (13.6)	14,860 (1.6)	112,932 (12.4)	594,441 (65.2)	65,166 (7.2)
보 령 시	합계	36,699 (100.0)	5,209 (14.2)	670 (1.8)	8,953 (24.4)	20,091 (54.7)
	대천동	3,918	1,485	187	244	2,002
	죽정동	2,092	413	—	—	1,679
	화산동	68	—	—	—	68
	동대동	3,091	1,323	255	—	1,512
	명천동	4,519	1,026	123	—	3,371
	궁촌동	979	256	72	—	650
	내항동	4,983	—	—	—	4,983
	남곡동	206	—	—	—	206
	웅천읍	6,020	693	32	1,027	4,267
	주포면	782	—	—	—	782
	오천면	3,807	—	—	3,647	160
	남포면	4	—	—	—	4
	주산면	1	—	—	—	1
	주교면	4,504	13	—	4,020	471
	기타	—	—	—	15	717
						994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2013, 보령시 KLIS자료

5. 생활권 분석

>> 보령시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로 분석

-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음⁴⁾

4) 분석방법은 데이비스(W. K. D. Davies)의 기능지수법을 사용하여 기능지수를 구하고, 군집분석에 의하여 계층을 구분함
- 중심기능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하며, 각 기능에 대한 입지계수를 구함

$$C = \frac{t}{T} \times 100 = \frac{1}{T} \times 100$$

C : 기능 t 의 입지계수
 t : 기능 t 의 하나의 시설수
 T : 중심지체계 내에 있는 기능 t 의 모든 시설수

- 각 중심지가 보유하는 일정 기능유형의 시설수에 그 기능의 입지계수를 곱하여 그 중심지의 일정 기능유형이 가지는 중심성의 양을 얻은 후 그 중심지의 총체적인 중심성인 기능지수를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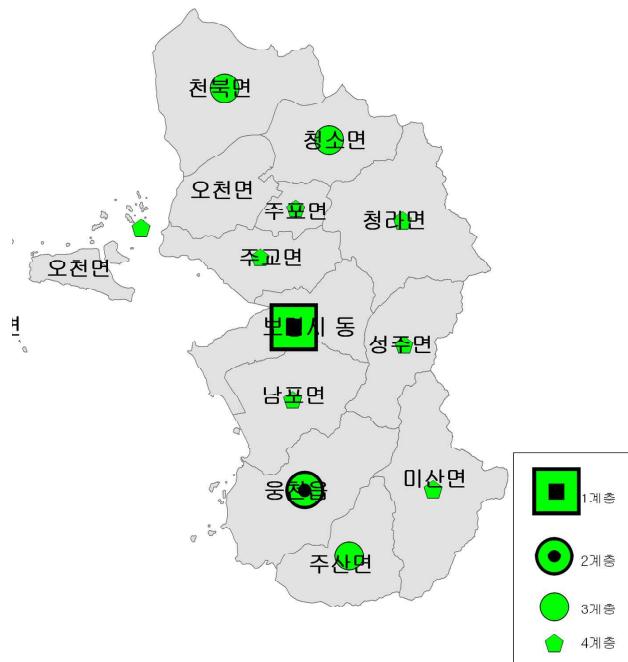
$$F_a = \sum A_t \times C_t$$

F_a : 중심지 A 의 기능지수
 A_t : 기능 t 의 시설수
 C_t : 기능 t 의 입지계수

- 제1계층은 보령시 동지역으로 중심성 비중이 보령시 전체의 84.61%에 달해 보령시에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냄

보령시의 중심지 계층구조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계층	중심성 비중
동지역	6,176.71	1	84.61
웅천읍	479.14	2	6.56
주산면	121.72	3	1.67
천북면	109.66	3	1.50
청소면	102.88	3	1.41
청라면	69.30	4	0.95
성주면	57.01	4	0.78
주교면	49.04	4	0.67
주포면	47.04	4	0.64
오천면	40.51	4	0.55
남포면	34.81	4	0.48
미산면	12.17	4	0.17



- 제2계층의 경우 웅천읍으로서 6.56%를 나타내고 있어, 보령시에서 동부지역 다음으로 지역의 부차적인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1계층과 2~4계층 간의 차이가 월등히 높아, 시청 소재지인 동부지역과는 대조적으로 2~4계층이 농촌중심지의 정주환경 기초서비스 기능으로 볼 수 있음
- 제3계층의 경우 보령시 전체에서 각각 1.41%~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산면, 천북면, 청소면 등의 높은 순으로 약한 중심성을 보임
- 제4계층의 경우 보령시 전체에서 각각 0.17%~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라면, 성주면, 주교면, 주포면, 오천면, 남포면, 미산면 등의 높은 순으로 나타나 가장 작은 범주의 중심성을 보임

6. 문화관광자원

1) 역사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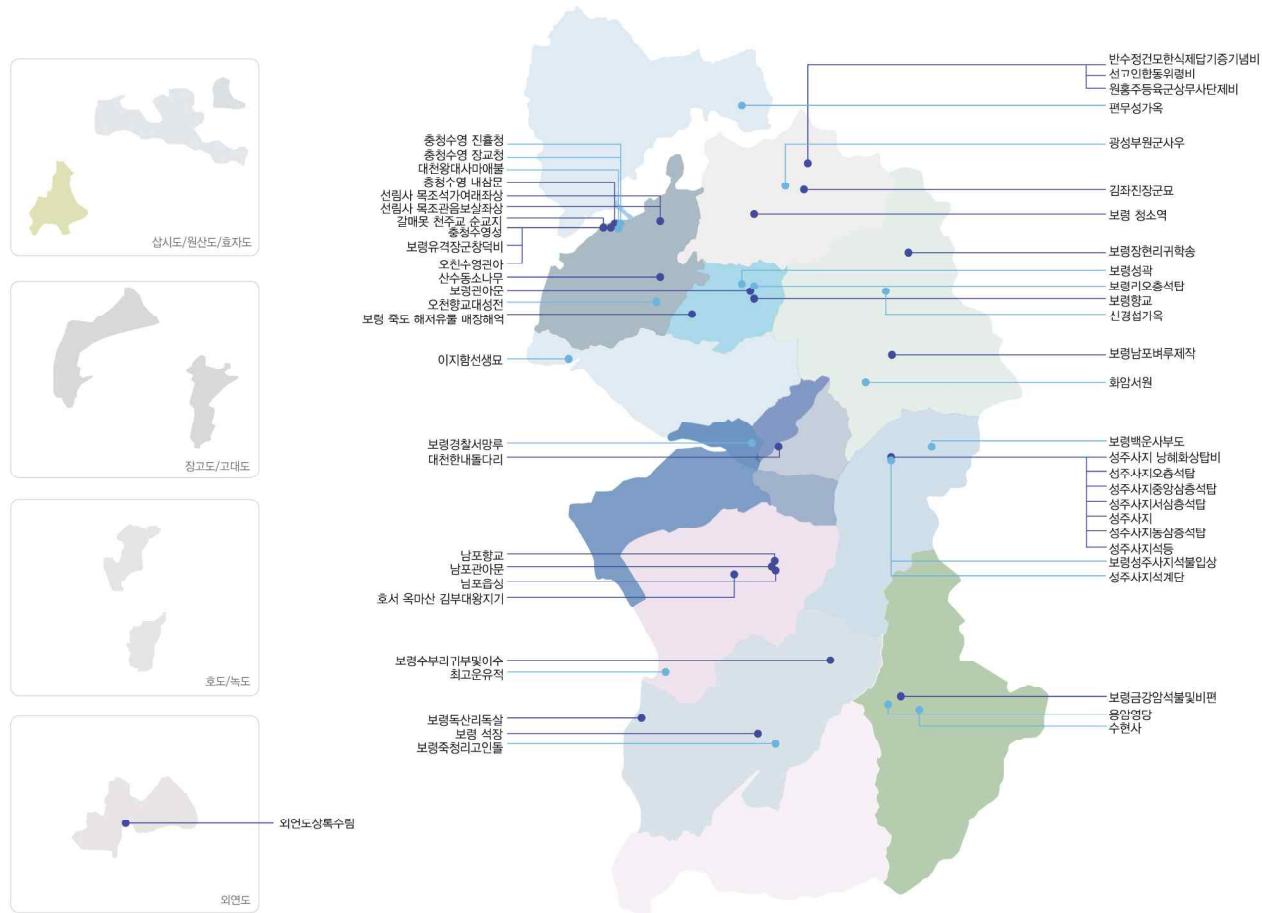
》 보령시에는 총 54점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

- 국가지정문화재 9점, 지방지정문화재 23점, 문화재자료 19점, 등록문화재 1점 등 총 54점을 보유

보령시 문화재지정 현황

총 계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소 계	국보	보물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 문화재	중요무형 문화재	사적 및 명승		소 계	유형 문화재	시 · 도 기념물	문화재 자료	무형 문화재	시 · 도민속 문화재
54	11	1	3	1	3	-	3	1	42	12	7	19	2	2

자료 : 문화재청



보령문화재 분포현황

2) 관광객 현황

» 2012년 보령시 방문객수는 약 1,536만명 방문

- 보령시의 관광객수는 2012년 현재 약 1,536만명으로 2007년 약 1,941만명에 비해 약 400만명 정도 줄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 역시 -4.58%로 꾸준히 감소추세임
- 특히 무료관광지가 2012년 현재 약 1,459만명으로 2007년 약 1,878만명에 비해 연평균 -4.93%의 꾸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무료관광지 관광객 감소에 따른 점검이 필요
- 하지만 유료관광지의 경우 2012년 현재 약 79만명으로 2007년 약 63만명에 비해 연평균 4.0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내국인방문객수가 3.48%에 비해 외국인 방문객수가 30.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개화예술공원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의한 유료관광지 외국인 방문객수가 크게 늘

보령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단위 : 명)

연도별	총계	방문객수				무료관광지 (내·외국인 미구분)	
		유료관광지					
		계	내국인	외국인			
2007	19,410,811	630,497	622,490	8,007	18,780,314		
2008	16,732,830	562,236	555,812	6,424	16,170,594		
2009	16,991,676	620,909	612,506	8,403	16,370,767		
2010	17,032,004	834,928	814,478	20,450	16,197,076		
2011	16,572,203	729,666	699,014	30,652	15,842,537		
2012	15,356,829	768,944	738,587	30,357	14,587,885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	-4.58	4.05	3.48	30.54	-4.93		

자료 : 2013 보령시 통계연보



방문객의 월별 분포

3) 관광지 현황

〉》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 보유

- 보령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서 보령8경을 꼽을 수 있으며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바닷길, 성주산 휴양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도, 오천항, 월전죽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보령 8경

구분	개요
대천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조개껍질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균수심 1.5m, 길이 3.5km, 폭100m에 달하는 해수욕장
무창포 바닷길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을 전후하여 2~3회 해변에서부터 석대도까지 1.5km의 바닷길이 열림
성주산 휴양림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보령의 대표적인 산이며, 화장골계곡과 심연동 계곡이 있음
보령호	성주산과 성태산에서 발원된 두 개의 작은 하천이 만나 이루어지는 웅천천에 댐을 막아 세운 호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
오서산	충남도에서 두 번째 높은 명산으로 산 정상에는 억새밭을 구경할 수 있음
외연열도	천연기념물 제 136호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유명
오천항	수심이 깊고 원산도 안면도 등 섬들이 자연적으로 방파제 구실을 하여 피항 시설이 필요없는 만큼 자연적 조건이 좋은 곳
월전죽도	대천 해수욕장과 남포 방조제 끝머리에 있는 용두 해수욕장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섬으로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자료 : 보령시청 홈페이지, 2014

7. 산업시설 현황

〉》 보령시에 가동 및 조성(계획)중인 단지는 총 16개 단지임

- 가동중인 산업단지는 고정국가산업단지, 관창일반산업단지, 대천농공단지, 웅천 농공단지, 웅천석재농공단지, 주산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 주포2농공단지, 청소 농공단지 등 9개임
- 조성 및 계획중인 단지는 영보일반산업단지, 선진일반산업단지, 청과농공단지 등 3개임
- 이외 보령복합물류단지, 조선 및 중공산업단지, 건설기계 및 농축산바이오산업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음

산업단지 가동 및 조성(계획) 현황

구분	단지명	면적(m ²)	업체수	시행자	업종	비고
계	12	10,125	103			
국가산단	고정	4,596	1	한국중부발전(주)	발전사업	
소계	3	4,283	9			
일반산단	관창	2,453	9	공공·민간	자동차부품, 전자	
	영보	1,093	-	민간	전기, 가스, 증기업	조성중
	선진	737	-	-		계획중
소계	8	1,246	93			
농공단지	대천	102	10	보령시장	기계장비, 식료품	
	웅천	229	23	"	식료품, 비금속광물	
	웅천석재	150	24	"	비금속광물	
	주산	154	1	"	금속가공	
	주포	172	16	"	금속, 전기장비	
	주포2	143	8	"	자동차, 트레일러	
	청소	148	11	"	비금속광물	
	청라	148	-	"	-	계획중

자료 : 보령시 산업단지현황 및 제조업체 현황(2014), 보령시청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국가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서해안 초광역개발권(신산업벨트)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역내의 연계 인프라 구축, 환황해권에서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산업 환경을 재정비하고 중국 및 ASEAN 제조업과의 분업 협력 추진
-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충청권의 에너지·자원·배후산업 기능 지원 등을 위해 대산 및 보령을 거점 항만으로 육성
-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육성
 - 광역관광·문화벨트 공동 개발·보전을 위해 충청권 건강회랑(보령, 아산, 제천, 오송, 예산, 수안보, 양성, 유성 등)과 역사문화루트 등을 활용

2)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농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동·서축 교통체계 완비, 항만물류 산업의 고도화,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
- 농수축산 바이오 R&D 클러스터 조성
 - 쌔푸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원산도 Seven Island 조성
 - 보령 원산도 주변 섬의 자연경관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특화관광지 개발, 원산도 포트랜드, 흐자도 섬생태교육지구, 고대도 선교마을, 장고도 어촌민속체험마을, 녹도 해상공원, 삽시도 휴양타운, 외연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보령~안면간 연륙교 건설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
 - 대천해수욕장 내 사계절 Indoor Mud-park 개발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Floating Mud 콤플렉스, Mud Island(Care+Leisure+Wellbeing)리조트, 문화·위락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등 설치



●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 보령(장항선)~청양~공주~행정도시~조치원(충북선), 88.8km(새만금-군산간 철도 및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사업은 새만금 등 관련사업의 추진현황, 물류량,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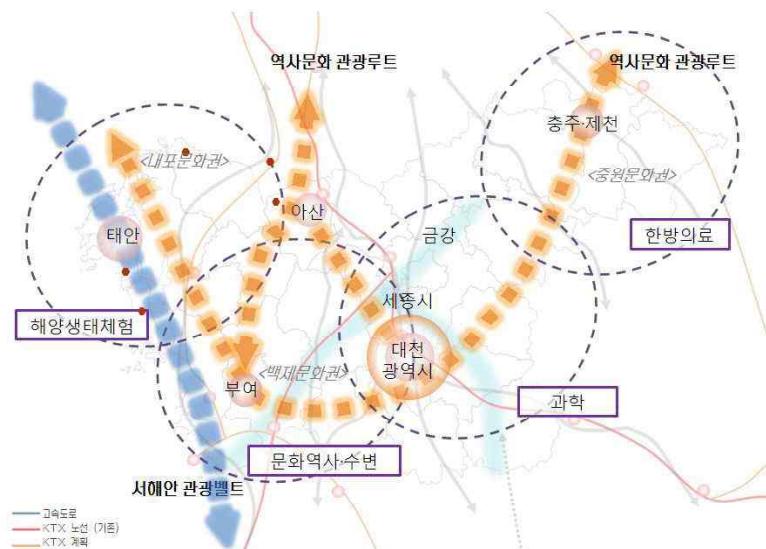
● 서해안권 항만간 연계발전을 위한 열차페리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열차페리 연계를 위한 전용항만, 열차전용페리시설 구축방안과 북중국 항만과 연계한 항만 시설 정비방안 등 연구

- 환황해권 포트 얼라이언스 구축방안 연구
 - 서해안 항만간 네트워크 연계 · 공동마케팅방안, 북중국 주요 항만과의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방안 등 연구
- 서해안 항만의 균해운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해운~도로, 해운~연안, 해운~철도, 해운~항공 운송시스템 연구
- 서해안 저탄소 녹색항만 개선 연구
 - 항만시설 · 장비 · 선박분야의 저공해기술, 리사이클 · 태양열 방식의 물류센터, 야드크레인 전기구동방식 · 바이오 에너지 개발 연구 등
- 보령신항 건설
 - 관창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물류량 급증이 예상되는 보령지역에 대중국교역의 거점 항만으로 건설하는 방안 검토, 보령신항은 관련사업의 추진현황, 물류량, 재정상황 등을 고려, 중장기 검토

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내포~백제~중원 문화권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루트 조성
 - 머드축제(보령)를 활용한 지역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관광자원 육성
- 해양~하천~산악자원을 연결하는 녹색관광 활성화
 - 안면도, 원산도(당진·태안·보령)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개발 추진, 보령 머드축제 등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축제 육성, 문화생태탐방로, 자연휴양림, 팔경과 구곡, 템플스테이 및 성지순례 등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연계·육성



충청 관광권 공간전략 및 특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

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

- 장항선의 복선화 및 일반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 건설선 고속화 추진
- 일반철도
 - 보령~조치원 구간 등 철도노선간 미연결구간의 철도신설 등은 수송수요, 투자재원 등을 감안하여 장기과제로 검토·추진(88.9km)

중장기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안)

구분	사업내용	연장(km)
일반철도/ 광역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98.3

- 항만

- 대중국 교역증대를 위한 지역항만의 개발·확충을 위해 보령신항 건설, 항만물동량을 충청 지역과 인접으로 수송하기 위해 국도40호선(부여~보령)등 배후수송망 확충

5)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

- 보령 마리나항만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산91번지 일원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형 마리나로 개발
- 개발규모는 향후 수요증가, 활성화단계에서 개발요청시 타당성 검토 후 반영
- 시설계획 : 해상·육상시설 40,000m²

6)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2011~2021

■ 연안개발로 인한 오염부하 확대 예상

- 연안지형 변화로 해양환경수용력 저하와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 변화 우려, 가로림만, 아산만, 홍보지구 등 수질악화, 보령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연안 어장훼손

■ 연안하수처리 시설 미비로 해역환경 악화 우려

- 해양쓰레기 및 오페수 유입으로 수질 및 자연경관 훼손, 홍보지구를 통해 나오는

육상기인 오염원(축산폐수 등)에 의한 수질 및 연안오염 심각, 양호한 해양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 필요

■ 우수한 연안자원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의 이해 상충이 지속

- 연안환경 · 수산자원 보전 및 연안이용을 둘러싼 다수의 이해상충 발생
 - 보령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민원발생, 시설입지로 인한 경관훼손, 연안접근권 제약,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 갯벌체험 등 관광활동에 의한 저질 생태계 위협
- 해빈 · 해안사구의 모래유실과 금강하구 해안 침·퇴적 현상 지속
 - 서천 및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모래 유실, 안면도 지역 해안선 후퇴 등이 발생
- 자연해안 실태조사 및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 개발 및 이용압력이 높은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자연해안관리 목표 설정(개발압력이 높은 충남의 자연해안 : 보령신항만 구역, 해안사구 등)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강화
 -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 후 관리유형(절대보전 · 준보전 · 이용가능 · 개발가능) 지정, 조사 결과 자연생태계 지형 · 지질 ·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는 특제도서로 지정 · 관리,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육상에서 찾기 힘든 식생과 철새 등 희귀 동 · 식물이 다수 분포하여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보전, 개발가능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용 행위의 주기적 점검

■ 연안·해양 갈등조정 메커니즘 구축

- 갈등 관리 체제 도입 및 적용
 - 갈등 발생 예방 : 무인도서(보령시) 개발
 - 외연도(가고싶은섬)-호도(도서종합개발사업)-장고도권역(장고도, 고대도, 삽시도 (명품섬)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 추진

7)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공항개발

-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사업종합개발계획('09.8 ~ '11.2) 수립 이후 새만금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서 항공수요를 재검증하여 추진방안 검토

■ 소형항공기 운항 인프라 구축

- 도서지역 등의 접근성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개발 추진
 - * 4대강 살리기 및 동서남해 벨트 개발구상 등 국토개발계획 변경 여건을 반영한 지역생활중심 공항개발계획 수립

8) 제1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대천항 내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내 수질정화 목적으로 일환으로 준선토투기장을 조성하고 준설계획 추진
- 준선토투기장의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이면서 주민친화적인 해양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부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대상지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문화·전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개발효과 극대화
- 기존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연안관광항의 기능 수행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보령시 신혹동 대천항내 준선토투기장(면적:376.700m²)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6년 (5년 단위 재정비,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항만기능의 정비 및 개발방향

- 정비 및 개발방향
 - 고부가가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대규모 수산 종합타운 조성과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주변 관광지와 기능적 보완을 위한 공간 조성
 - 향후 대천항 기존 항만배후부지와 준선토투기장 개발완료시 지역주민의 정주기반 구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입시설 구상
- 항만기능재편에 따른 부두 기능재배치
 - 제3차 전문연안항 기본계획상 항만관련 개발계획 예정이 없는 준선토투기장 유휴부지로

개발에 따른 별도의 대체 부두확보는 필요하지 않음

- 항만기능재편에 따른 개발시기

- 준설토투기장 유휴부지에 대하여 어구수리장 이전 및 2단계 투기 완료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필요

2. 광역계획

1)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계획 2008~2017

■ 충청남도권

- ‘PINE Coast’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변지역과 원산도, 대천해수욕장을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안면도~원산도~대천 따라 길게 늘어선 해수욕장과 해안 송림, 항포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함
- 중심거점 지역은 휴양중심의 안면도지구와 레포츠·위락 중심의 대천지구, 문화·체험 중심의 원산도지구로 기능을 분담함
- 그러나, 원산도지구는 연육교 산업 등의 요인으로 장기화가 예상되어 안면도와 대천지구를 우선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함



PINE Coast 구상도

PINE Coast 개발개요

구분	사업개요
안면도지구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약 158만평
원산도지구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약 214만평
대천지구	보령시 남포면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원, 약 65만평

■ 원산도지구

• 개발 목표 및 전략

- 보령시 도서지역의 거점기능과 대천과 안면도의 중간기착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도 77호선의 연육교 자체를 관광자원화
- 어패류 채취, 소규모 어선을 이용한 어업체험, 갯벌체험 등의 지역 농어촌 마을, 지역주민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원산도내의 기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민박 중심의 숙박시설과 갯벌, 염생 생태원, 해양문화센터 등의 교육체험시설 및 문화시설을 도입해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조성함
- 기존 수림대를 활용하여 섬 속의 자연휴양지 및 전원마을을 조성하며, 소규모 민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해양레포츠, 이벤트 공간을 마련함

■ 대천지구

• 개발 목표 및 전략

- 대천지구를 생동감 넘치는 레포츠형 위락 해변리조트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휴양 및 해양레포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함
- 신규시설의 도입 및 개발보다는 기조성된 시설들의 재정비와 지구 전체의 자연과 조화가 되게 검토하고 휴양·문화시설 확충함
- 세계머드축제를 비롯한 머드상품 체험관, 머드관련 상품판매장, 전시 및 홍보관, 행사개최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관광객 유치 강화

• 추진방향 및 사업

- 표적시장별 다양한 전략을 수립
- 국내: 식도락, 객벌, 크루즈 등 체험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 국외: 백제불교최초도래지(영광), 미용(보령, 무안), 드라마세트장(부안) 등 개발

2)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2005~2014)

- 서해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사구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내포 해양 및 생태체험관광 지역으로 육성
- 특히, 대상권역에 해양생태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경관 및 생태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
- 주요 사업지구 가능잠재자원으로는 갈매못성지 등을 설정하며, 관련 역사유적의 정비개발을 추진

자원특성별 개발주제

자원 특성	검토 주제	착안 사항	대상 지역
서해안과 접한 성지 및 관련 역사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미정지 상태	갈매못 성지	점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성지를 선적, 면적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해양 지역의 대표적 역사공원으로 조성	오천면 영보리

■ 오천성 정비

- 4개의 문루를 복원하며, 장시간이 요구되는 성곽정비는 전체 1,260m 중 900m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성내 시설 중 영보정지를 복원하여 역사관광자원화를 추진

■ 갈뫼못성지 정비

- 기개발된 성지를 정점으로 진입로 및 주변도로망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을 추진

■ 보령읍성 복원 정비

- 성곽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유적의 정비를 추진
- 성곽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 큰 문루를 선행하여 정비하고 성체는 기존의 양호한 부분의 보존과 미정비구간의 정비를 동시에 추진

■ 화석전시 및 고인돌공원 조성

- 화석을 주제로 하여 전시·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공간조성을 위한 구체적 시설로는 선사시대 고인돌을 주제로 한 고인돌공원과 화석의 역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화석전시관을 설치

■ 갈매못성지 진입도로

- 갈매못성지의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순례객 및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지역간 연계성 확보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내포문화권 사업별 개요

구 분	위 치	사업량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오천성 정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17,800m ²	6,200	2005~2014
갈피못성지 정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7,900m ²	3,960	2005~2009
보령읍성 복원 정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11,400m ²	5,050	2010~2014
화석전시 및 고인돌공원 조성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9,300m ²	7,660	2010~2014
갈피못성지 진입도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km	6,000	2005~2014

3)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안)(2006~2015)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풍부한 자원 보유, 태안·대천 중심의 해양자원과 내륙 온천관광지 위주, 서해안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여름철 편 중에서 다계절화)으로 『국제적인 종합 해양관광 중심지대 조성』, 안면~대천 순환관광루트 중심의 당일 관광명소

3. 충청남도 관련계획

1)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 권역별 발전방향 : 서해안권(환경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 휴양·관광의 메카)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함

발전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구분	축별 연계지역	개발방향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 국제교역·교류 거점, 해양관광·해양산업지대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유통 거점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함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함

■ 보령시 발전방향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관광과 휴양의 글로벌 보양 도시)

- 해양 및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한 4계절 전천후 관광·휴양도시, 문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및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 기반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안심 도시 창조, 따뜻한 복지 사회 실현

2) 제5차충남권관광개발계획

■ 개발 여건

-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가 및 관광정책에 있어 태안지역과 보령지역은 환황해권을 대표하는 관광레저지대로 육성하고자 함
- 충남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특히 안면도 개발, 안면도와 보령시 간의 연육교 건설 등으로 인한 연계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소득 증가, 관광행태 변화에 따른 해양관광,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

■ 계획 과제

- 충청남도 관광거점 조성과 연계관광자원의 개발
 - 충청남도 해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명소 육성으로 관광거점도시로 조성(태안, 보령)
-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의 발굴·육성과 매력성 제고
 - 향토 특색이 있는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 지역문화행사의 적극적 육성
-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과 자생적인 관광사업의 추진

- 서해 연안의 차별화된 특화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 지역주민 참여와 민자유치를 통한 활성화 사업 추진이 가능

기존 관광개발사업

(단위: 백 만원)

기존 관광개발 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문화 관광 개발	구대천역사문화관광자원	보령시	2008~2012	42,775	향토사료관, 공연장, 종합관광센터, 상징탑, 경관사업, 주차장 등

신규 관광개발사업

(단위: 백 만원)

신규 관광개발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녹색 생태 관광 지원	세븐 아일랜드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	보령시	2012~2016	7,500	주민교육사업, 경관개선사업,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구축사업

3) 충청남도-세종시 상생발전사업

■ 상생발전사업 수요조사

시군	사업명
보령시(4)	보령신항 건설사업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사업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 연수(휴양)센터 건립

■ 국가공무원 연수센터 휴양복합공간 조성사업

- 세종시 등 종합 공무원 연수센터 및 복합 레저공간 조성,
- 보령시는 세종시 이전 가족 등에 대한 휴양 레저를 위한 복합단지(연수실 10실, 객실100실, 기타 부대시설 등)를 조성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인천시, 1980년), 한국방송광고 공사연수원(양평군, 1984년),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천안시, 1999년 이전), 고용노동연수원(경기 광주시, 1989년) 수도권에 있는 낙후된 연수원 시설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 세종시와 연계한 고속교통망 구축사업

- 보령~세종간 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내륙연결 고속도로망으로 구축하고 서해안 초광역개발권과 내륙첨단산업벨트 간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중부내륙 산업물동량의 항만연계와 관광수요를 처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로 세종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 세종시와 서해안 관광을 연계한 철도망 구축사업

- 금강관광경전철(세종시~서천, L=105km, 2016~230)은 금강변을 따라 세종시에서부터 금강하구둑까지 단선으로 연결하는 관광형 경전철, 충천선 산업철도(세종시~보령, L=60km, 2016~2030)는 충청권철도와 연계하여 논산에서 부여를 거쳐 보령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구축

■ 세종시 관문항만 구축사업

- 충청권에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주변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의 물류지원을 위해 항만을 개발, 보령항 9선석(공용부두 1, 컨테이너 5천톤급 3, 1만톤급 3, 2만톤급 3) 이상의 다목적 부두를 조기에 건설, 평택·당진항의 대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여객 및 무역항으로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항만관련시설(해양사무소, CIQ기관, 물류업체, 대리점, 전시관, 편의시설 등)의 종합타운화

4. 보령시 관련 계획

1) 2020년 보령도시계획 2006~2020

■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글로벌 녹색성장도시, Eco-Healing City, 2020년 보령”

- 광역 교통망의 구축을 통하여 보령시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 들과 특산물, 휴양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어촌과 건강, 치유가 어우러진 관광 및 첨단산업의 융복합화의 육성에 따른 보령시의 지역경쟁력을 제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도시 구현

■ 테마가 있는 「관광·휴양 중심도시」 건설

- 미래지향형 관광기반 구축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

테마 관광벨트 조성,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첨단 마케팅 강화 및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상품 육성

■ 기업과 일자리가 모여드는 내일이 더 풍요로운 「지역특성화 산업도시」 건설

- 산업의 육성과 클러스터화 추진,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 고품질화

■ 활력 있는 「동북아 교역중심도시」 건설

-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는 교통망 확충, 국제 직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물류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기능 강화

■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창조도시」 건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주민참여 확대, 살맛나는 농촌건설 기반강화,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안심 도시창조

“21C 자연친화적 복합도시 창조 → Eco-Healing City, 2020년 보령”



2) 보령시 섬지역 종합발전계획(2005~2013)

- 천혜의 아름다운 섬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방향 수립, 공공서비스 시설과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모색, 해안중심지와의 연계개발을 통한 편의성 증진방안 도출, 도서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개별도서의 자생력 배양, 도서의 격절성 해소, 미래형 수산업의 발굴·육성, 도서

의 관광자원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

- 편리하고 안전한 도서 생활환경 구축,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의 확충, 지속가능한 도서환경 보전, 도서 고유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고부가 관광자원화
- 자생적 도서 생활환경의 기반 구축,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구현,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도서지역 고유의 관광상품화,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 조성

3) 보령시 중기발전전략 2007~2015

-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허브앤크로크(Hub & Spoke) 전략
 - 보령시내 주요거점과 지점을 연계하여 지역활성화 효과 극대화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화(Convergence) 전략
 - 보령의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휴양산업과 여타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 자연환경, 생태농업, 문화 등을 녹색관광, 농촌관광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감성, 문화,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 지역의 매력을 마케팅하는 브랜드(Brand) 전략
 - 지역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의 구미에 맞는 장소를 만들어 가면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보령의 지역브랜드를 제고함, 지역의 입지, 경관, 상품, 인재 등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상품화, 고객과 시장을 향해 열린 마인드를 확산하고 지역혁신을 지속함

4) 연륙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문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자원 개발,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문화 산업육성 지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농림·수산부문 : 농산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어업 기반 조성,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산림경영자원 육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 산업·경제부문 : 특화사업과 신산업의 조화로운 성장,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방기업 마케팅, 투자유치, 시장정보 제공 등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 건립,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센터 건립
- 보건·복지·교육부문 : 청소년 수련시설 및 공부방 확충, 창업보육센터 지원, 공공보건 기반 확충(의료서비스, 보건 인프라), 지역복지 서비스 확대(아동 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 환경부문 :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녹색성장 발전
- 수자원·교통부문 : 편리한 교통체계 및 첨단 교통체계 형성,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준공대중교통수단 개발 및 운영, 특정지역 도로 건설 지원
-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 :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기반 구축, 도로 개선,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주민자치시설 확충, 운영지원, 공원 조성, 읍·면 중심 시가지 정비, 마을 기초 인프라 정비, 주택개량,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마을 경관관리, 마을의 유류자원 정비·개발, 읍·면 중심지 기능 활성화

5) 21세기를 지향하는 만세보령 자치시정 발전전략(~2016)

〉〉 4대권 개발전략

■ 북부권(천북면, 청소면, 오천면, 주포면)

-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항만·유통 등 교역기능을 중점 배치하여 21세기 교역기지화, 주변의 농·축산, 생산기반의 강화를 통한 농촌 정주 기반조성

■ 중부권(보령시청을 주축으로 성주면, 주교면, 남포면)

- 기존 시가지를 거점으로 광역생활권을 구축하여 보령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도록 하고,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시설 건설, 관창공단 배후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동도시로 개발

■ 남부권(웅천읍을 주축으로 주산면, 미산면)

- 지역 석재산업을 전문화하여 소득경제 기반을 강화, 웅천공단의 배후도시로 건설, 무창포 해수욕장과 보령댐 하류의 호반(수변)관광을 특화시킨 관광지 개발

■ 해양도서권(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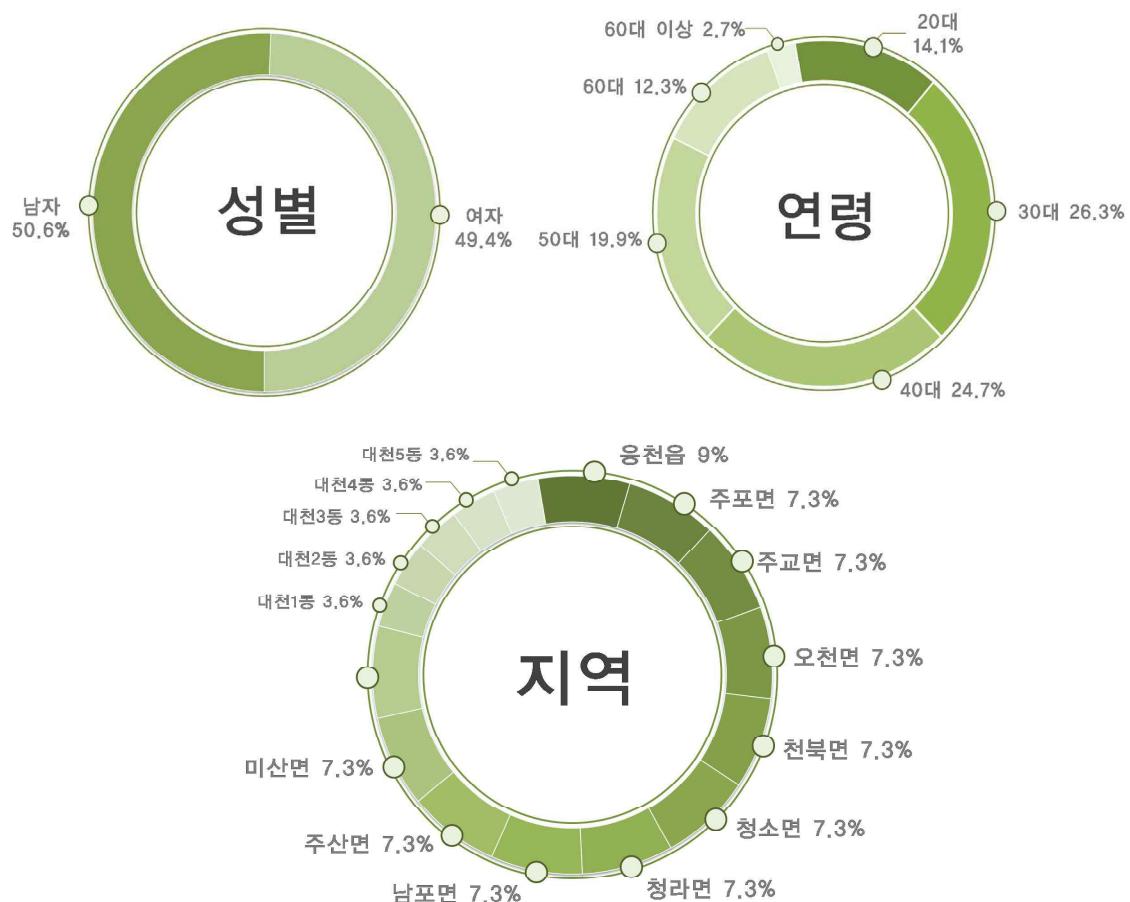
- 청정해안의 도서를 관광지화 하고 대천해수욕장~원산도~안면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신설로 내륙관광 휴양·스포츠레저 관광벨트로 개발

제3절 주민의식조사

1) 주민 설문조사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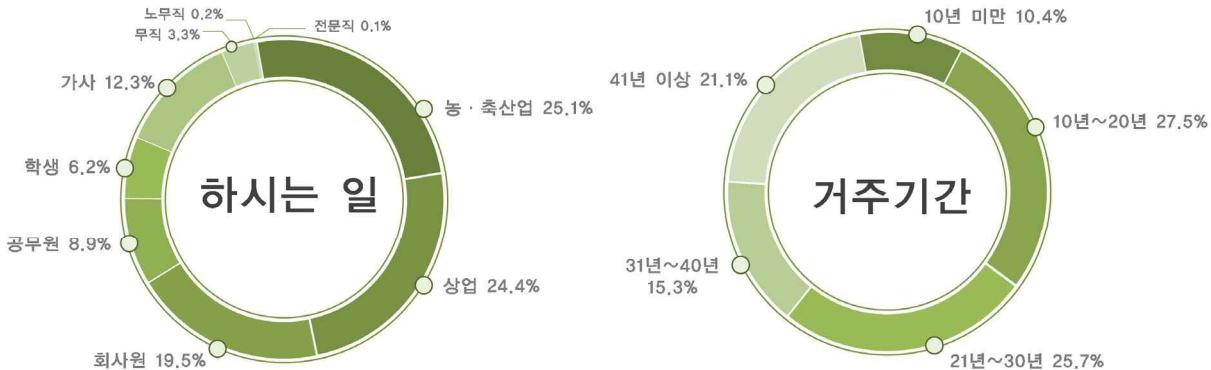
》》 일반사항

- 설문조사지는 응천읍 100부,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사면, 미산면, 성주면 80부,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총1095부가 회수되었음
- 성별로 구분하며 남자 50.6%로, 여자 49.4% 보다 약간 높은 비율 차지
- 연령대는 20대 14.1%, 30대 26.3%, 40대 24.7%, 50대 19.9%, 60대 12.3% 등 30대, 40대, 50대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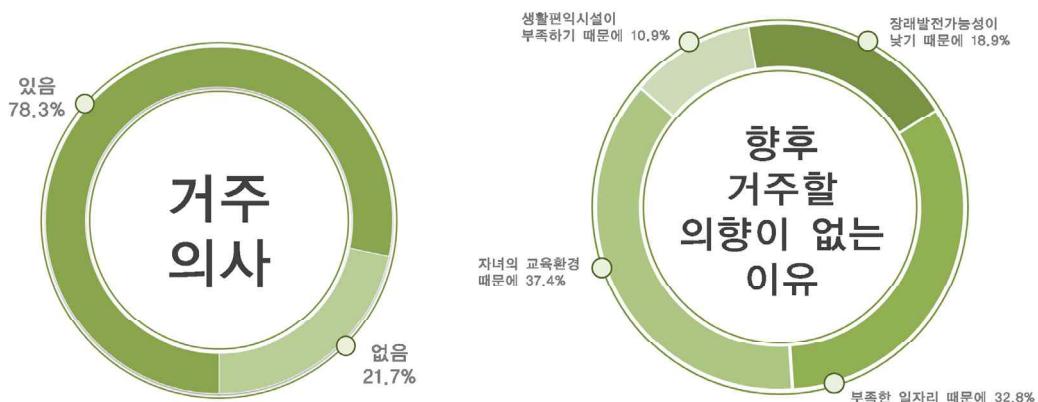
- 살고 있는 지역은 응천읍 9%,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사면, 미산면, 성주면 7.3%, 대천 1동, 2동 3동, 4동, 5동 3.6%를 차지하며 응천읍 비율이 다른 면·동에 비해 높음

- 직업은 농·축산업 25.1%, 상업 24.4%, 회사원 19.5%, 공무원 8.9%, 학생 6.2%, 가사 12.3% 등 농·축산업,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부분 차지
- 거주기간은 10년 미만 10.4%, 10년~20년 27.5%, 21년~30년 25.7%, 31년~40년 15.3%, 41년 이상 21.1%, 10년~20년, 21년~30년, 4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남



》 보령시 거주에 관한 사항

- 향후 지속적으로 보령시에 거주 생각에는 있음 78.3%, 없음 21.7%를 차지하여 거주의사가 반 이상 차지
- 향후 지속적으로 보령시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는 이유는 자녀의 교육환경 때문에 37.4%,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32.8%, 장래발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18.9%,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9% 순이며, 자녀의 교육환경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가 대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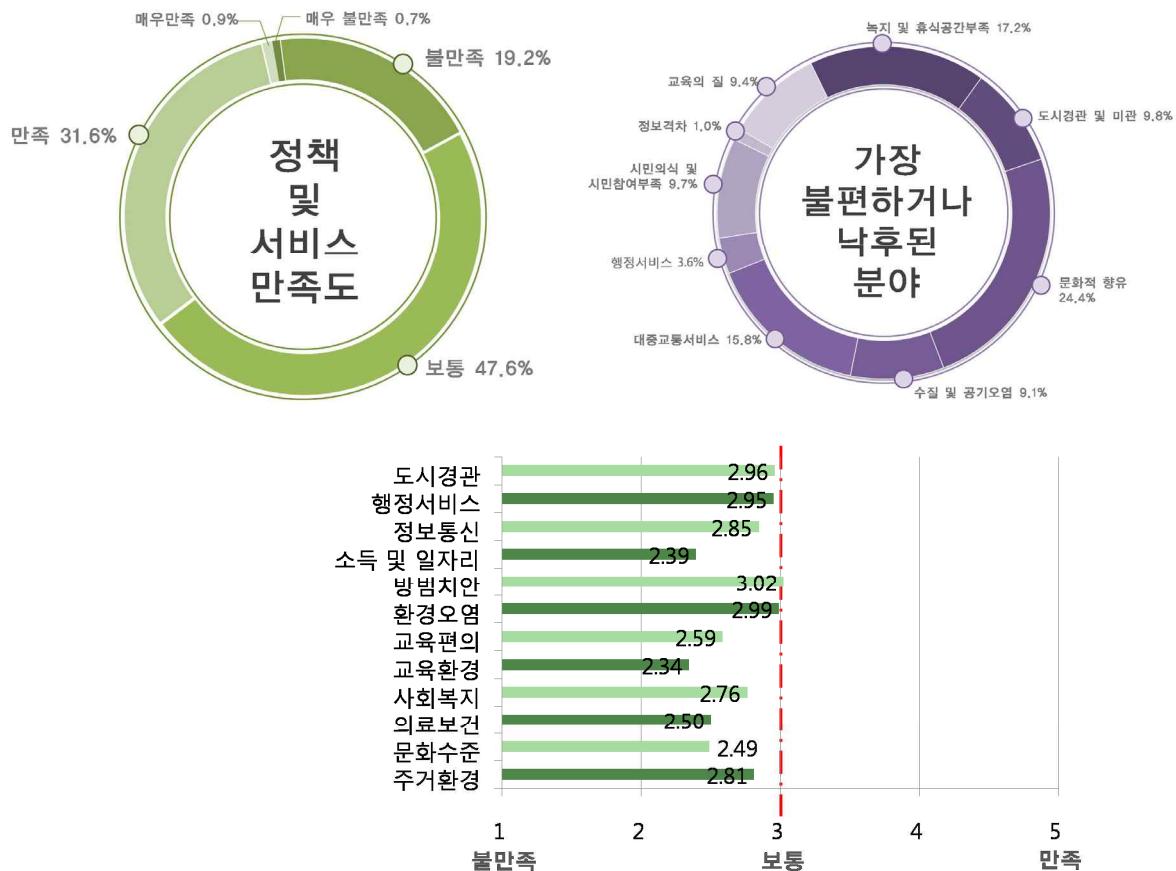


2) 정책에 관한 사항

》 정책 및 삶의 질

-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에서 보통 47.6%, 만족 31.6%, 불만족 19.2% 등 순으로 나타나며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이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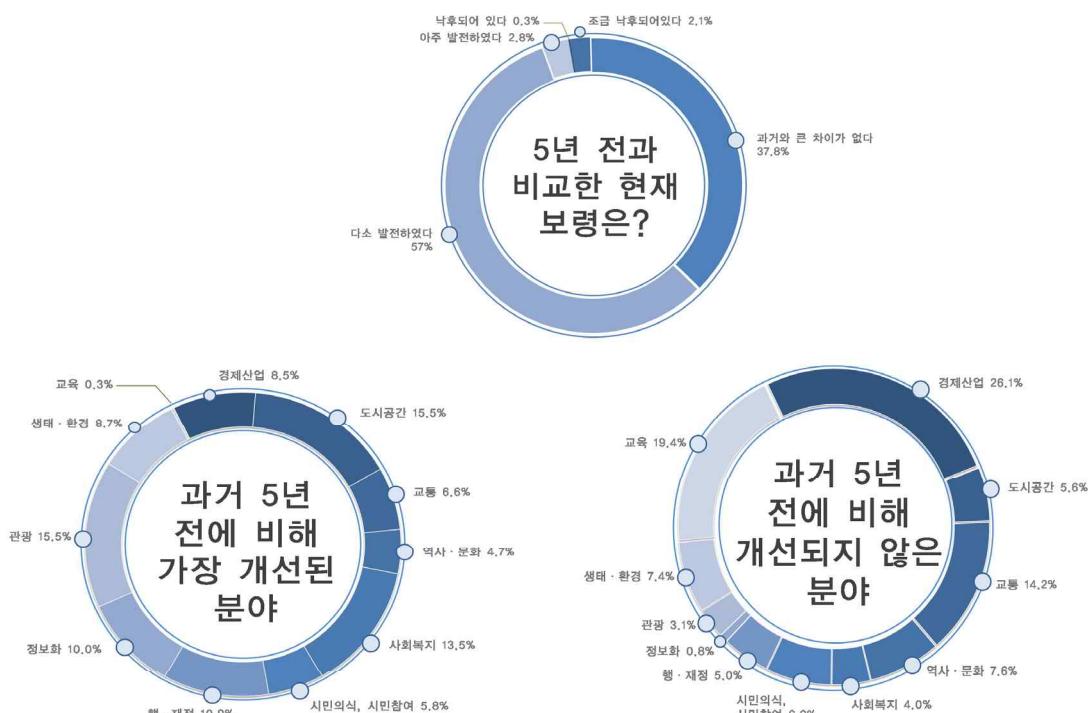
- 보령시의 삶의 질의 수준은 평균 2.72점으로 나타남
- 가장 높게 평가 점수를 받은 부분은 방범치안 평균 3.02점, 환경오염 2.99점, 도시 경관 2.96점, 행정서비스 2.95점, 정보통신 2.85점, 주거환경 2.81점, 사회복지 2.76점, 교육편의 2.59점, 의료보건 2.50점, 문화수준 2.49점, 소득 및 일자리 2.39점, 교육환경, 2.34점으로 나타남
- 전체적 평균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삶의 질 수준은 방범치안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이하로 나타남
-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하거나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문화적 향유 24.4%, 녹지 및 휴식공간부족 17.2%, 대중교통서비스 15.8%, 도시경관 및 미관 9.8%, 시민의식 및 시민참여부족 9.7% 등을 차지하였으며, 문화적 향유분야가 많은 비율을 차지



》 보령시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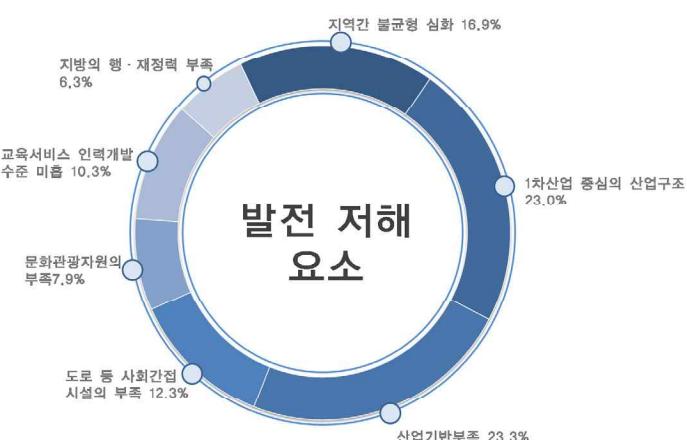
- 과거 5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보령은 다소 발전하였다 57%, 과거와 큰차이가 없다 37.9%, 아주 발전하였다 2.8%, 조금 낙후되어있다 2.1%, 낙후되어 있다 0.3%를 차지하였으며 다소 발전하였다가 대부분을 차지

- 과거 5년 전에 비해 가장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관광, 도시공간 15.5%, 사회복지 13.5%, 행·재정 10.9%, 정보화 10.0% 등 순위이며, 관광, 도시공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
- 5년 전에 비해 가장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경제산업 26.1%, 교육 19.4%, 교통 14.2%, 역사문화 7.6%, 생태환경 7.4%, 시민의식, 시민참여 6.8% 등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산업 부분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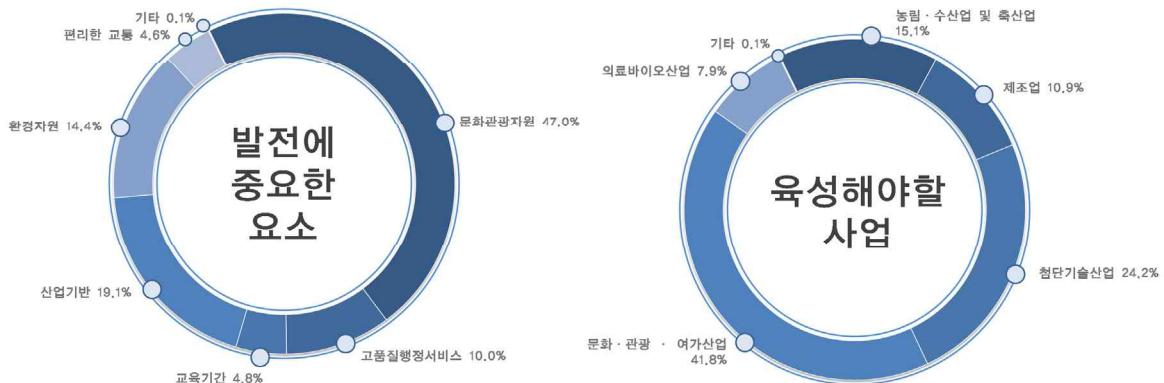


》 보령시 발전에 대한 인식

- 보령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산업기반부족 23.3%,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23.0%, 지역간 불균형 심화 16.9%, 도로 등 사회간접 시설의 부족 12.3%, 교육 서비스 인력개발 수준 미흡 10.3% 등으로 나타나였으며, 산업기반부족,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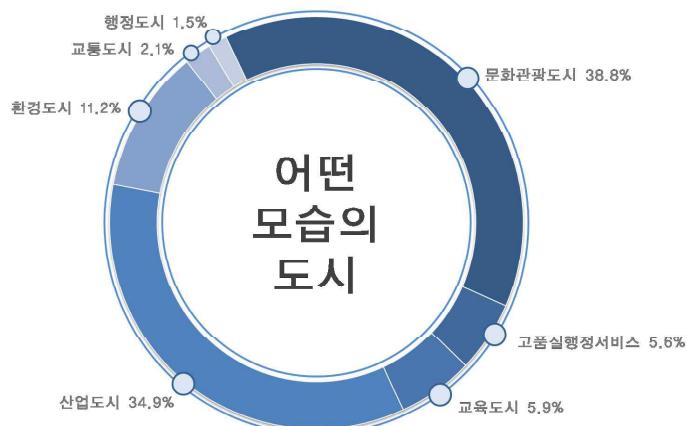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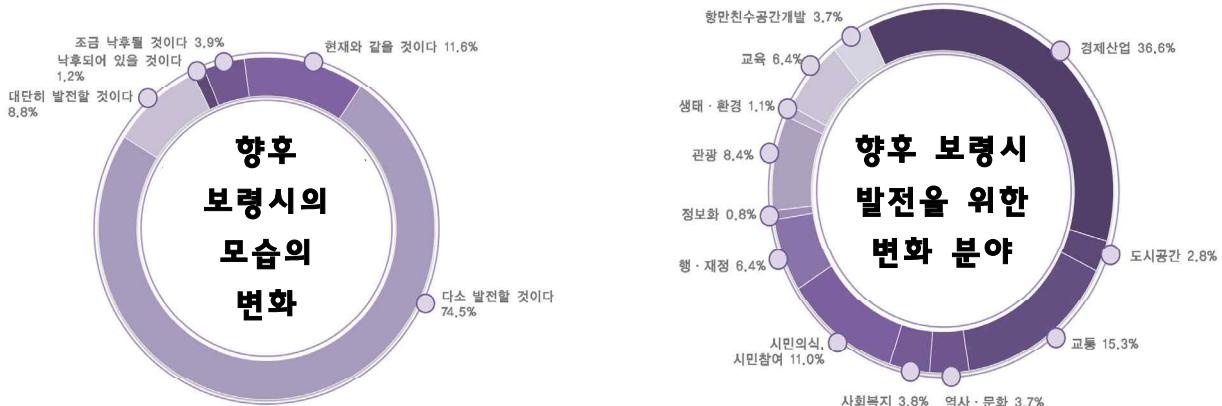
- 발전을 위해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는 문화·관광·여가산업 41.8%, 첨단기술산업 24.2%,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15.1%, 제조업 10.9%, 의료바이오산업 7.9%, 기타 0.1%를 차지하였으며, 문화·관광·여가산업 부분의 비율이 높음
- 발전에 중요한 요소는 문화관광자원 47.0%, 산업기반 19.1%, 환경자원 14.4%, 고품질행정서비스 10.0% 등 순위이며, 문화관광자원 부분이 5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함



》 보령시의 미래상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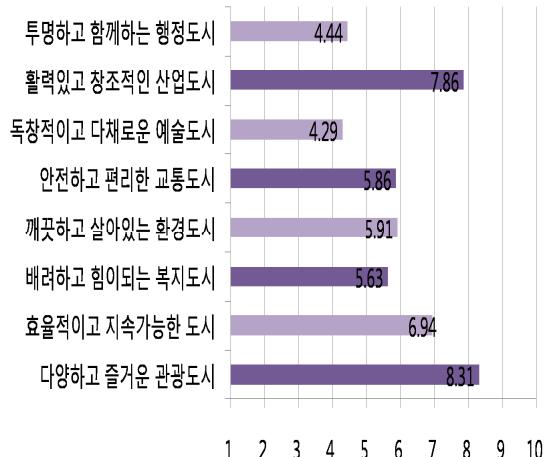
- 앞으로 보령시가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질문에 문화관광도시 38.8%, 산업도시 34.9%, 환경도시 11.2%, 교육도시 5.9%, 복지도시 5.6% 교통도시 2.1%, 행정도시 1.5%를 차지하였으며, 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의 비율이 높음
- 향후 보령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였을 때 다소 발전할 것이다 74.5%, 현재와 같을 것이다 11.6%, 대단히 발전할 것이다 8.8%, 조금 낙후될 것이다 3.9%, 낙후되어 있을 것이다 1.2%로 나타났으며 다소 발전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
- 향후 보령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분야는 경제산업 36.6%, 교통 15.3%, 시민의식, 시민참여 11%, 관광 8.4%, 행정, 교육 6.4% 등 순위로 나타났으며 경제산업이 높은 비율 차지





》 보령시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의 방향

-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추진 목표 및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24.7%, 보령의 장기적인 발전 23.1%, 도시의 경쟁력 강화 22.5%, 보령의 세계 도시로의 성장 17.8%, 시민의식 및 문화개선 11.9%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보령시 미래를 위한 정책분야 중 중요한 순위로는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전체 평균의 결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즐거운 관광도시, 활력있고 창조적인 산업도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깨끗하고 살아있는 환경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배려하고 힘이 되는 환경도시, 투명하고 함께하는 행정도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예술도시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하고 즐거운 관광도시, 활력있고 창조적인 산업도시의 중요도가 높게 측정되고 있음



- 보령시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로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평균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 및 사업체 증가 평균4.08점, 주민소득증대 평균4.01점,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평균3.95점, 읍면간 균형발전,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 각각 평균3.77점으로 나타남

- 평가지표로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업 및 사업체 증가의 중요도가 적은 차이로 제일 높은 중요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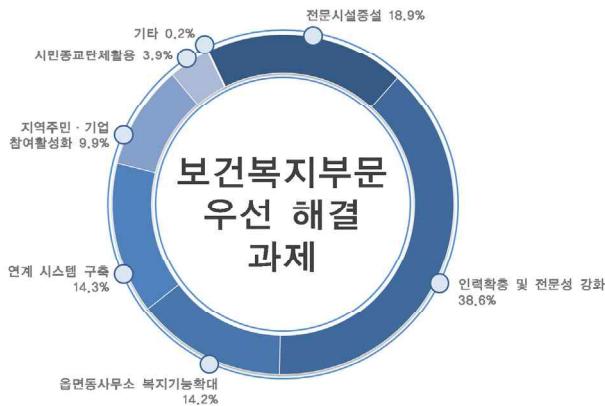
》 관광부문

- 보령시의 관광부문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관광산업육성 22.8%, 관광벨트조성 22.1%, 관광자원 및 관광지개발 17.7%, 인력육성 및 서비스 수준제고 12.2% 인프라 구축 11.5%, 홍보강화 8.2%, 관광계획수립 5.5%이며, 관광관련된 과제가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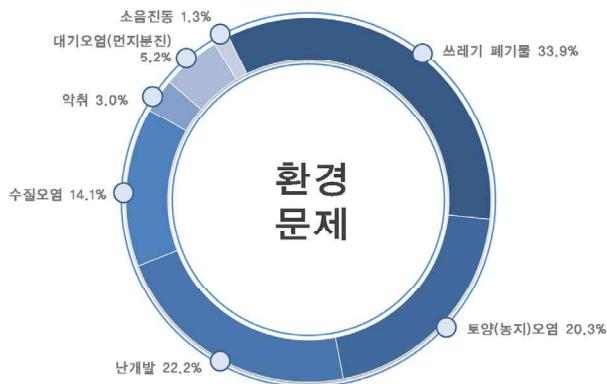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문

- 보건복지 부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는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38.6%, 전문시설증설 18.9%, 연계 시스템 구축 14.3% 지역주민기업참여활성화 9.9%, 시민종교단체 활용 3.9%, 기타 0.2% 순위이며,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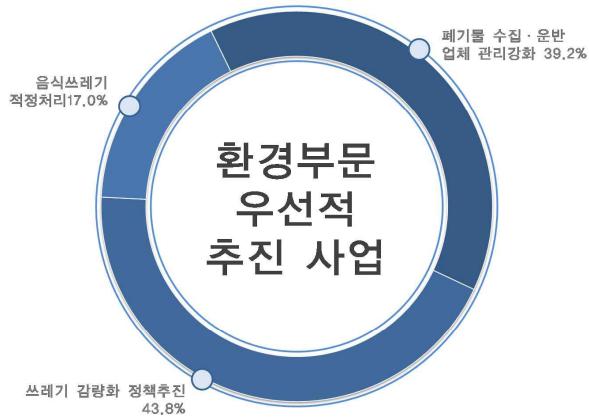


》 환경부문

- 우려하는 환경문제로는 쓰레기 폐기물 33.9%, 난개발 22.2%, 토양(농지)오염 20.3%, 수질오염 14.1%, 대기오염(먼지분진) 5.2%, 악취 3.0%, 소음진동 1.3% 순위이며, 쓰레기 폐기물이 환경 문제로 많은 비율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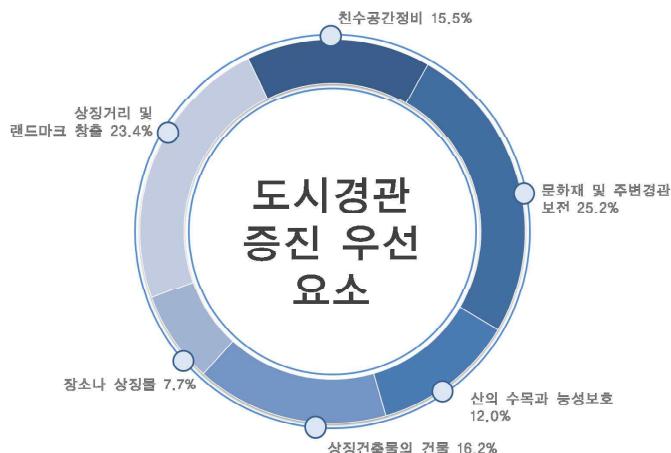


- 환경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쓰레기 감량화 정책추진 43.8%,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리 강화 39.2%, 음식쓰레기 적정처리 17.0%이며, 쓰레기 감량화 정책추진이 많은 비율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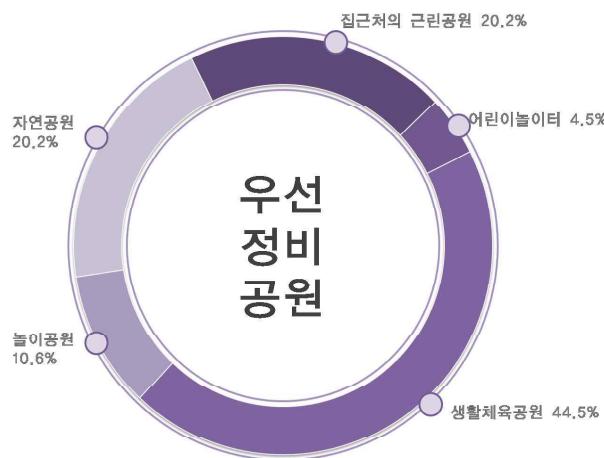
〉〉 도시경관부문

- 도시경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문화재 및 주변경관보전 25.2%, 상징거리 및 랜드마크 창출 23.4%, 상징건축물의 건축 16.2%, 친수공간정비 15.5%, 장소나 상징물 7.7%로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전, 상징거리 및 랜드마크 창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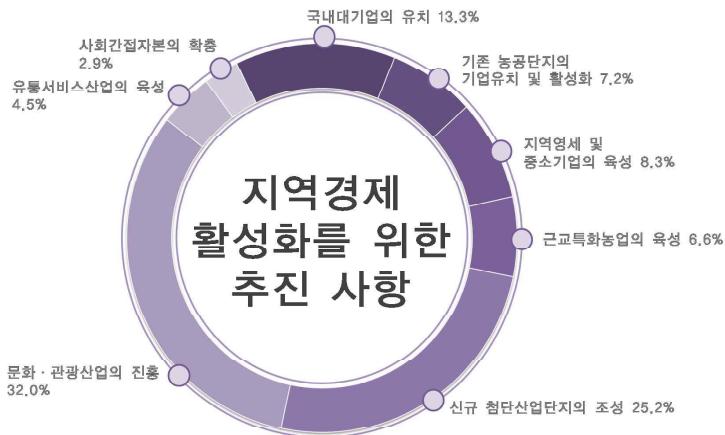
〉〉 공원정비부문

- 보령시의 휴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공원으로는 생활체육공원 44.5%, 접근처의 근린공원, 자연공원 20.2%, 놀이공원 10.6%, 어린이놀이터 4.5% 순이며 생활체육공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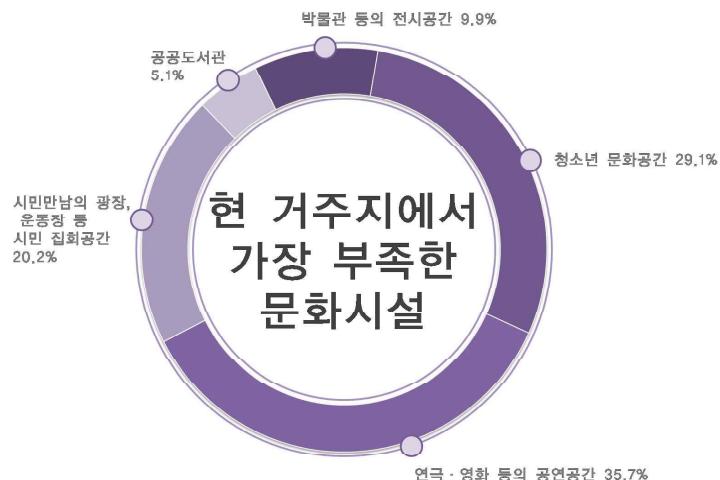
〉〉 지역경제활성화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문화 관광산업의 진흥 32.0%, 신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25.2%, 국내대기업의 유치 13.3%, 지역영세 및 중소기업의 육성 8.3%, 기존 농공단지의 기업유치 및 활성화 7.2% 등 순으로 나타나였으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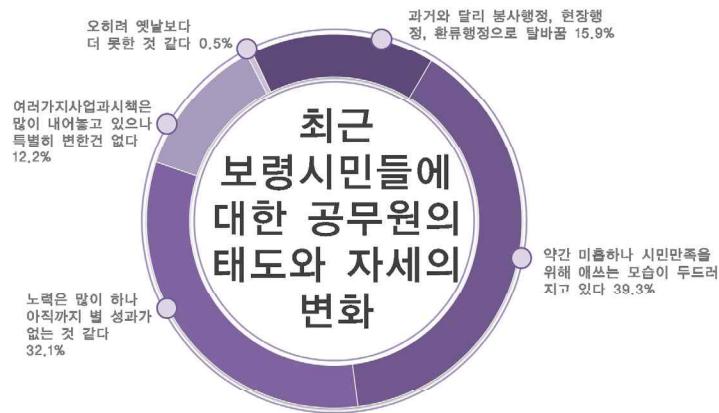
〉〉 문화시설부문

- 현 거주지에서 가장 부족한 문화시설로는 연극영화 등의 공연 공간 35.7%, 청소년 문화공간 29.1%, 시민만남의 광장, 운동장 등 시민 집회공간 20.2%, 박물관 등의 전시공간 9.9%, 공공도서관 5.1% 순위이며 연극영화 등의 공연 공간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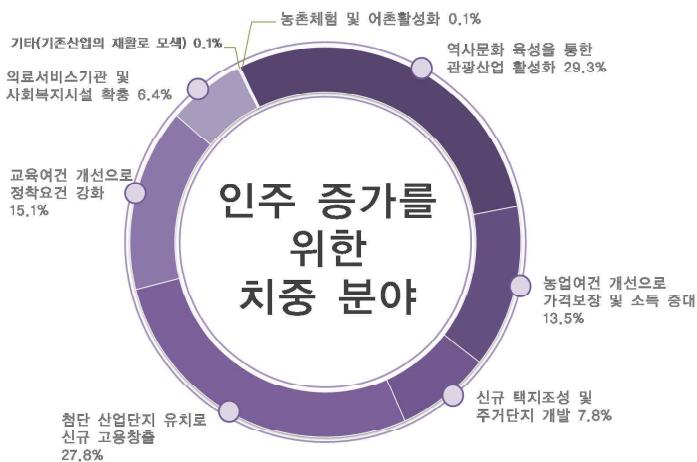
〉〉 행정부문

- 최근 보령시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나 자세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나에 대한 질문으로는 약간 미흡하나 시민만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39.3%, 노력을 많이 하나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는 것 같다 32.1%, 과거와 달리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현장행정, 환류행정으로 탈바꿈되었다 15.9%,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은 많이 내어 놓고 있으나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12.2%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다 0.5%를 차지하였으며, 약간 미흡하나 시민만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인구 증대를 위한 중점분야

-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치중해야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역사문화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29.3%,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 27.8%, 교육여건 개선으로 정착요건 강화 15.1%, 농업여건 개선으로 가격보장 및 소득증대 13.5%, 신규택지조성 및 주거단지 개발 7.8%, 의료서비스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6.4% 등을 차지하였으며 역사문화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 분야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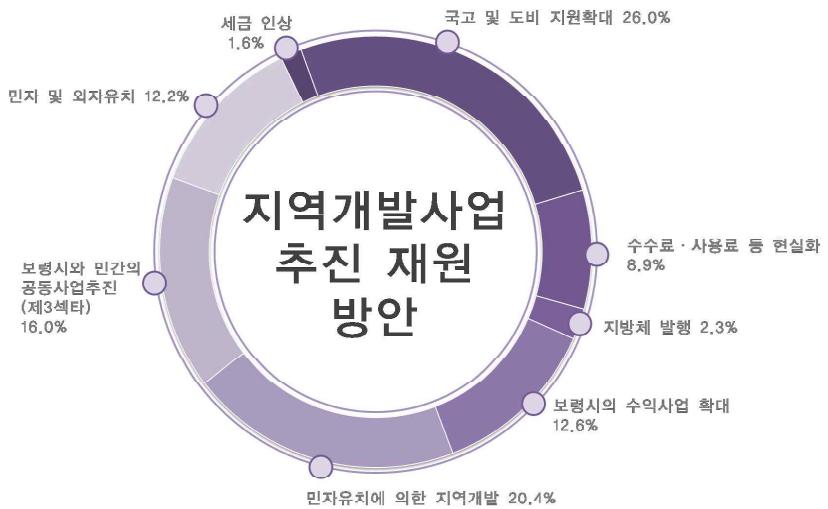
〉〉 지역의 먹거리 경쟁력부문

- 보령의 특산품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으로 향토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특산품 가공판매를 지원한다 27.5%, 놀지의 유통업체와 협약체결로 판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5.7%, 참신한 디자인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 21.7%, 품질가격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20.3%, 행정기간(시당국)이라도 나서서 크게 활성화시켜야 한다 4.8%를 차지하였음



>>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고 및 도비 지원확대 26.0%, 민자유치에 의한 지역개발 20.4%, 보령시와 민간의 공동사업추진(제3섹타) 16.0% 보령시의 수익사업 확대 12.6% 등으로 차지하며 국고 및 도비 지원확대비율이 높음



제4절 분석의 종합

1. 현황 분석 종합

〉〉 도시개발에 따른 지형 훼손 지속

- 보령시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 도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지속

〉〉 기후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 최근 최고온도의 상승은 향후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라 지속되고, 최고온도도 갑신

〉〉 도시적 토지이용 면적이 지속적 증가

- 대규모 개발, 전원주택 개발, 도로 개설, 공장 입지 등으로 도시적 토지이용 면적이 지속적 증가

〉〉 인구 자연증가 감소, 산업단지 개발 등 유입인구 증가 전망

- 현 추세 적용시 인구는 감소(2025년 96,391명), 계획인구 달성시 2025년 143,877명 (2020년 150,000, 이후 감소)
- 산업단지 개발 예상 유입인구가 실제로는 미미, 2025년 예상 인구 평균값인 120,000명 수준으로 전망
- 따라서, 목표인구는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유지하여 140,000명

〉〉 주택수는 가구원수 감소 전망으로 주택수요 증가 예상

- 2025년 예상인구 120,000명, 가구원수 2.3명 적용시 52,174호, 목표인구 150,000명 적용시 65,217호 필요, 2012년 44,606호로 2025년까지 20,611호 추가 건설(매년 1,586호 정도의 공급)

〉〉 출생인구 일정수준 유지, 사망률 낮아져 고령인구 증가

-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으로 일정수준 유지,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노령인구 증가율 적용 및 산업단지 유입인구 고려시 2025년에 25%, 유소년 15%, 경제활동인구 60% 수준 전망

〉〉 인구분포는 대천동 지역에 60%의 인구 집중

- 기능의 집중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

〉〉 사업체는 3차산업으로 집중, 55% 수준까지 증가

- 현 추세 적용시 3차산업이 60%이상 증가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그 비중을 55%수준으로 낮춤
- 단순어업에서 수산물가공으로 연계, 이를 위한 기술개발, 교육 등의 분야와 협력적 관계 구축

〉〉 교통의 발달, 관광패턴 변화, 차별화된 상품 요구

-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 세종시 성장,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관광객수 및 패턴의 변화 예상
- 특히, 국도77호선(2018), 평택-부여(익산)간 고속국도(2020 예상) 개통은 보령시의 변환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

〉〉 문화관광자원의 정비로 인한 유료관광객수 증가 지속

- 다양한 볼거리, 체험관,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관광산업 확대 지원

〉〉 국도77호선 개통, 동서축 고속국도 등 광역적 연계기능 강화

- 태안, 홍성, 청양, 부여, 서천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강화, 평택-익산간 민자고속국도 사업 추진으로 접근성 개선

〉〉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강화, 철도, 물류 활용여건 개선

- 장항선과 호남선 연결, 서해선 철도 확충,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등 대중교통기반 확대

〉〉 인프라 개선으로 보령신항 개발, 원산도중심의 해운체계 개편

- 연계 교통망 부족으로 개발 지연된 보령신항 활성화 모색 가능
- 국도77호선 개통에 따른 대천항 및 오천항의 기능 분담과 도서 관광 촉진 기대

〉〉 민선6기는 도약의 준비단계, 2020년 이후 성장지역 탈바꿈

- 2015년은 국가계획 등 마지막 재정비 추진으로 보령시 도약을 위한 대응시기
- 2018년까지 도약을 위한 준비(기반확충에 전력) 시기

- 2020년까지 새로운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추진에 대응한 국가계획에 2020년 이후의 사업 반영에 전력
- 2025년까지 침체국면에서 성장국면으로 전환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로의 도약

2. 관련계획 검토 종합

〉〉 관광·휴양 중심도시

- 보령 등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은 인근 신산업지대의 배후로서 환황해권의 해양관광지로 육성, 서해안 문화관광벨트의 대중적 관광중심지로써 동북아 관광객 유치, 대천해수욕장을 주변의 해수욕장과 연계하고 원산도, 죽도 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해관광지로 개발

〉〉 국제적 교역 및 교류의 중심지

- 보령신항을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조성, 중부권의 복합물류기지 및 특화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광역물류체계 구축, 보령신항의 대북·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화 및 보령~안면도간 연륙교의 가설과 연계한 세계적 교류거점 구축

〉〉 광역 연계교통망체계의 구축

- 대중국 교역증대를 위한 보령신항의 건설, 항만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국도 등의 건설로 배후수송망 확충,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과 국도 21호선의 확장 및 선형조정으로 보령시로의 접근성 제고, 장항선 복선화 계획에 따른 도시내 철도노선 이설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 자동차부품 및 정보통신산업의 관창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을 장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아주자동차대학 등 특성화 대학의 유치로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

제3장 기본구상

1. SWOT분석

2. 계획과제 도출

3. 비전 설정 및 추진전략

제1절 SWOT 분석

1. 강점과 약점

- 산업단지 분양률 급증 및 산단의 추가 조성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부족 및 자연산업과의 연계 부족
- 국도77호선, 보령울진간고속국도, 충청선 복선전철화 등 주변도시와의 연계교통망 구축의 가시화가 되고 있으나 남북축의 교통체계의 한계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수요 부족으로 최종적 사업확정 및 추진의 어려움
- 해양관광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보령머드축제 등으로 인한 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 확대되고 있으나 계절적 관광패턴의 격차가 크고, 외부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에는 한계
-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조화롭게 갖춘 자연환경적 이점이 있으나 갖고 있는 자연환경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농산어촌 공존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의 특성화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타 농산어촌과의 차별성 부족 및 농림수산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심각
-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 확대로 수준 향상되고 있으나 가용자원의 부족 및 지정학적 특징으로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복지수준 격차 심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의 미흡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도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보다 국가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지속

2. 기회 및 위협요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실질적인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정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 만연

- 인프라구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확산 및 평택부여(의산)간 고속국도, 장항선의 호남선 연결 및 서해선 연결 등 연계교통망 구축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통과 지역이라는 점에서 보령시의 유입보다 외부로 유출패턴의 강화 우려
- 국민관광패턴이 힐링체험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관광으로서 도서의 관광여건이 점점 확충되고 있으나 태안과의 연결 등으로 관광객 유출 우려 및 지역의 관광역량이 문화예술분야가 아닌 위락중심으로 차별적 경쟁력이 낮음
- 생태네트워크 등에 대한 복원과 관리추진을 통해 양호한 생태계 유지되고 있으나 산림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로 해양자원에 대한 실태 및 활용 기반 구축이 부재
- 농산어촌의 6차산업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 및 지원되고 있으나 차별성 상실, 2차 산업화 부족, 3차산업화로 인한 외부의존적 경제환경, 자체경쟁력 약화
- 국가적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복지기반시설 확충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복지정책으로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 다양한 국가지원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확보 용이하나 국가적 경쟁에 따른 유치 실패 우려 및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지방재정 고갈 위험

3. 대내적 강화과제

- 적기에 산업입지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 조성 필요하고 지역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의 양성 지원
- 가시화된 교통망과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사업 추진과 교통망과 연계한 교통수요 창출을 위한 개발사업 검토 및 추진
- 새로운 관광패턴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 추진 및 여름철 관광에서 사계절 관광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계절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
- 다양한 자연환경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환경훼손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및 떨어진 환경의 질을 복원하는 노력
- 농산어촌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보령시로 각인 노력과 함께 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젊은이 유치 및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복지 수혜자 지원이 복지 공급자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개발추진 및 복지 수혜자에 정확한 판단을 통해 차별적이나 적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낭비적 요소 해소

- 지역자치 역량은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하여 국가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한편 재정적 부족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전환 논리 개발 및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

4. 대외적 대응과제

-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자력 경제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교육 및 홍보하여 추진역량 확보
- 지역자원의 홍보 및 자원개발 등을 통해 통과수요를 지역교통수요로 전환 노력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출요소의 최소화 및 유입요소의 극대화
- 보고, 즐기는 위락중심에서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힐링 관광으로의 기반 확대와 함께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보령시의 관광연계 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관광을 유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생태 네트워크를 보전적 측면에서 체험적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생태계 체험 및 확보
-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통해 활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화 추진
- 다양한 복지 관련시설 또는 타시설과 융복합을 통한 가용자원 활용 극대화하는 한편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 및 주민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 국가지원정책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효과성 제시로 지원사업 확보에 노력하고 선제적 사업 제안을 통한 매칭비율 최소화 및 시범사업화로 재정 부담 완화

분야	강점(S)	약점(W)	대응방안
문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자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수영성, 성주사지, 갈매못성지, 고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 정비가 미흡 - 인지도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의미를 부각 ·자원의 복원, 정비 추진 ·자원간 연계로 효과 극대화
지역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도시로 이미지 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천해수욕장, 도서 등 - 머드축제 등 인지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능의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과 경제가 분산 - 농산어촌, 도시의 특징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개발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개발 ·지역간 균형잡힌 개발 추진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련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복지관 등 시설 확충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수요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인구유출 - 지리적 지원 범위가 넓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 추진 ·지역간 전달체계 정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
생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하고 다양한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하천, 저수지, 해양 - 평야, 도서, 댐, 갯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편의기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보존과 활용 부족 - 자원화 개발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적 가치 증진 노력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정비
교통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축 교통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 국도77호 건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축, 항만물류 기능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신항 개발 지연 - 동서교통축 도로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교통물류 기반 확충 ·내륙과 연계, 동서축 강화 ·지역자원과 연결성 확보
예술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예술관련 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예술, 체육분야 - 문화시설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의 콘텐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한계, 독창성 미흡 - 장르 부족, 인지도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독창적 예술 발굴 ·다양한 예술장르 활동 지원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
산업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여건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철도, 도로 여건 우수 - 전력, 수자원 및 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 개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축 교통망, 항만 지연 - 산업단지 입지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SOC 확충 논리 개발 ·연계 물동량 확보방안 마련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
자치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행정역량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우수행정능력 인정 - 안정적인 행정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협력 및 역동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연계협력 부족 - 주민자치, 추진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자치역량 강화 노력 ·협력적 종합행정체계 구축 ·외부역량 활용체계 활성화

분야	기회(O)	위협(T)	대응방안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기반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융성 촉진 - 평생학습 있는 문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원 적극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자원 개발 - 새로운 문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적 문화육성 정책 필요 ·저비용 문화관광활동 혁신 ·문화자원간 융복합 개발
지역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및 특화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 성장전략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의지 부족 - 지역특화 재생전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생노력 추진 ·종합적인 계획 수립 추진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핵심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 복지 중심의 정책 -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적 부담 능력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환경이 불충분 - 복지수요, 기대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개선
생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의 중요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후변화 대응 노력 - 친환경 가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과 보존의 갈등 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보존과 활용 부족 - 생태환경관리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협력적 관리 추진 ·보존과 자원화로 효과 증대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망 및 SOC 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울진간 고속국도 - 보령신항, 장항선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격한 교통물동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물동량, 교통량 부족 ·대규모 투자 감축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논리 마련 및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연계물동량 확보 ·SOC간 연결성 강화, 활용
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분야의 지역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에 예술 접목 - 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체육활동 참여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자, 수요자 불일치 - 다양한 장르기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적 예술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자-수요자 연결지원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산업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규제 해소 노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의 집중적 추진 - 새로운 산업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적으로 산업입지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 - 산업인력 수급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인력 확충, 전문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규제 해소 노력 ·이전기관 지원, 정착 유도
자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선6개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계 개편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수요 증가, 수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행정수요 증가 - 요구수준 기대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역량 지원 추진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원

제2절 계획과제 도출

1.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문화도시로의 전환

〉〉 새롭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관광

- 보령시는 그동안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인 관광객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보령시가 개발한 관광자원은 타 지역의 관광자원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그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가철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 최근 관광패턴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색다르고 느끼고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을 요구하고 있음

〉〉 지역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도시로의 전환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보령의 문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고, 보령의 문화이기 때문에 보령시가 가장 잘 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보령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지역적 특색이 부각되면서 보령시의 이미지도 단순한 해수욕장에서 지역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 가능

2.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발전 도모

〉〉 지역적 특성이 분명한 보령시

- 보령시는 도시의 형태가 남북을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서측은 해양, 동측은 산악으로 지형학적 특징이 분명하고, 보령시 동부을 중심으로 북측지역과 남측지역의 생활패턴도 매우 다름
- 또한, 지역적으로 산업입지, 관광지, 댐, 화력발전소, 폐광지역, 사격장 등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이 요구됨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국가 및 충남의 정책 기조에서도 해양수산부 복원, 서해안비전 제시 등 해양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정책 추진이 필요

- 또한, 지역산업의 쇠퇴로 인한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이나 지원이 아닌 전지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지역재생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장애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과 연계한 재도약의 발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의 3농정책과 연계하여 단순 생산에서 가공, 유통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저출산 고령화 및 경제환경 악화로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

〉〉 상대적 지역쇠퇴로 인구유출 및 고령화

-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지역간 편차가 더욱 심화되어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은 고령화 및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실태에 직면하게 됨
- 보령시도 폐광지역, 산업단지 분양 저조,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 침체 등으로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증가 등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복지적 수요가 증대됨

〉〉 정부정책과 연계 및 자활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필요

- 복지수요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형태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자가 복지공급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이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4. 자연환경 뿐만아니라 생활환경이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

〉〉 양호한 자연환경에 걸맞는 도시환경 정비 필요

- 보령시는 오서산, 성주산 등을 중심으로 동측의 매우 양호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깨끗한 해양자원 및 저수지 등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객 증가, 도시의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과 도시미관의 불량 등은 보령시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축산폐수 및 육지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가 급증하고 해양을 기반을 살아가는 어촌지역의 어려움이 증가됨
- 또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생태계단절 등으로 인해 먹이사슬이 끊어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까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깨끗하고 살아 있는 환경도시

-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내륙의 오염원으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수환경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생태계 단절 구간의 복원과 기존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
-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시가지로의 녹지 및 수환경 유입을 도모하며, 생활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환경 정비를 추진
- 특히, 보령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각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환경적 악영양요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지리적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망 확충

〉〉 지형적 여건으로 남북축으로 형성된 교통망으로 열악

- 보령시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남북으로 길게 행정구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망도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내륙과의 연계가 매우 열악하여 충청권의 대표도시인 대전시, 새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 그리고 충청권의 한쪽 날개인 충북권에서의 접근이 어려워 해양을 이용한 산업물류 및 관광레저의 활성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내륙 및 서해안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서축 확대

-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변지역 및 전국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함
- 그러나, 교통수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교통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중점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보령신

항의 원활한 건설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왜냐하면 항만은 산업물류를 지원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지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전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교통망이 연결되고 이들을 위한 기반서비스가 지역에 확대되어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기 때문

-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도 77호선을 통한 서해안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해운체계 등의 정비를 통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지원
- 주변지역으로 통과하는 평택-의산간 고속국도, 보령-울진간 고속국도, 충청선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보령신항을 연결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6.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예술활동 확대

〉〉 복지차원 및 관련 기관 중심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 보령시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은 주민의 최소한의 복지차원 및 관련기관 중심으로 유지를 위한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보다 다양한 장소와 대상으로 확대 및 보고 즐기는 것에서 참여하고 느끼는 것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적 특징을 고려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 및 인력을 육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활기를 제공해야 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도시 만들기

-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계적 개발 및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발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화
- 지역의 문화를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발전잠재력이 있으며, 관련 기능이 집적한 지역을 집중 육성 및 지원하고, 다양한 창작공간과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 구축을 추진
- 최근 대두되는 종교적 가치, 지역의 설화, 문화유적 등을 재평가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지역 마케팅 및 관광산업 육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지원

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 지역의 기간산업 쇠퇴 후 관광산업에 의존

- 보령시는 폐광으로 인해 기반산업 쇠퇴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에 매진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산업기반 조성에 미흡
- 결국, 국가 기간사업이 지연되고 축소되는 등 지역발전에 악영향으로 돌아왔고 지역의 경제 활력 감소로 이어졌음
- 관광산업은 여러요인에 의해 경쟁력을 떨어 가고 있으며, 보령머드축제와 같은 일부만이 그 명맥을 유지
- 또한, 이러한 관광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야기

〉〉 1차산업의 6차산업화 등 경제활성화 틀과 정책 개발

- 보령시가 보유한 다양한 산업자원 특히 해양자원과 관련하여 단순한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하고 관광상품으로까지 연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 추진하여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로 갈 수 있는 체질 개선
- 또한, 지역내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유통체계 구축 및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이주자를 위한 지원과 귀농귀촌 등 지역을 돌아오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하고 지역의 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함

8.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적은 인원에 많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만족도 저하

-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침체, 관광객 감소 등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여력은 감소 한 반면, 서비스 대상은 증대되는 악순환 연속
- 서비스의 양적 증대는 공급자의 역량 강화 및 인력 확충이 없이는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스트레스 증가

- 시민은 더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선거를 통해 반영되고 있음

>>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화 필요

- 행정서비스 제공자는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을 위한 재원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생산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업무의 간소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행정서비스 대상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불만족의 요인을 축소하며, 만족요인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증대
- 정책에 대해 시민이 함께한 시민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확대 추진
- 지금은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 및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건이 변화하고 수요가 증대되고 기술이나 가치가 증가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
-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이를 위해서 정책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여건변화 및 추진과정에서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